

12 2024 VOL. 342

www.innekorean.or.id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회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The all-new SANTA FE 출시

Live Bigger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2열 전동 독립시트 (윈터치 워크인)



하이브리드 전용 AVN 콘텐츠



현대 스마트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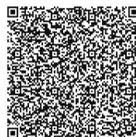
현대 블루링크

[판매 및 서비스 문의]

-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전담팀 대응
-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 홈페이지 (www.hyundai.com/id) 를 참조하세요

[한국인 금융상담]

- Sunindo KB Finance : +62 821-2595-5095 왓츠앱 문의
- 신한은행 : 1500881 또는 카카오톡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채널 검색



www.hyundai.com



월간 한인뉴스 12 2024



표지 사진 : 코리안데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2024.10.2.)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인도네시아 외교력의 지평을
넓히는 프라보워”

8

인도네시아 vs 일본전,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원팀응원단 구성

10

[김재훈의 '세무 TALK']

Coretax 시스템 시행규정
PMK 81/2024

11

[디카시 풍경] 빈 의자 <김준규>

12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contents

2024. 12. 통권 342호

16

[여기가 맛집]
Lawry's The Prime Rib
Jakarta <황지영>

19

JIKS소식

20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16]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24

[서상영의 한방칼럼 20]
생활 한의학 4 (1)

26

죽음으로 시작되는 여정
<조은아>

31

제15차 한 아세안 교통장관회의

32

[자카르타의 아침]
골프는 셋업이 중요하다 <손상현>

35

인도네시아 외교부 리자 특별강연
및 8.15 독트린 정책 지지

36

[행복에세이] 7시간 15분의 여정
<강인수>

38

[칼럼] 변화의 시대, 한식당의
과제와 기회 <조연숙>

41

Hyaang the Yoga 3
<Michelle>

44

[소설] 자카르타 경로당 <서상영>

49

2024 인도네시아 문학 9호발간

50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12 <신성철>

54

<무지개공부방>
김하나씨 이야기 <이영미>

58

찌까랑한인회, 코리아문화센터 개설

59

종근당, 고촌재단
인니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60

인도네시아 법 해설(340)
법치국가 2 <이승민>

63

제2회 디카시 경연대회 개최

68

생활정보

“인도네시아 외교력의 지평을 넓히는 프라보워”



논설위원 신성철

지난 10월 20일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아세안을 넘어 글로벌을 지향하는 외교 전략을 천명했다. 이날 프라보워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인도네시아의 미래 외교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제3차 세계대전을 경고하면서 ‘군사동맹 반대’와 ‘식민지화 반대’ 및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Independent & Active Foreign Policy)를 강조했다. 하지만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반복했던 아세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대신 ‘좋은 이웃 정책’ (Good Neighbor Policy)을 외교 정책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천 명의 친구는 부족하고, 하나의 적은 너무 많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인도네시아 외교의 미래를 한마디로 표현했다.

역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외교정책을 살펴보면, 신생 독립국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모하마드 하타 초대 부통령이 제시한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이 시작이며, 지금까지도 인도네시아 외교의 근간이 될 만큼 유효하고 명확하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글로벌 쟁점, 다자주의, 국제분쟁 중재 등 중견국 외교를 펼치면서 외교력을 과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냉전시대에도 미국과 소련에 치우치지 않는 비동맹운동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반둥회의(Bandung Conference 또는 Asian-African Conference)를 1955년 자국의 반둥에서 개최해 비동맹의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했다. 반둥회의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수립하고, 냉전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며,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약소국을 지배하려는 강대국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것이었다.

1998년 수하르토 대통령 퇴진 이후 개혁시대라는 큰 변화를 겪은 인도네시아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정부 시기에 국력이 신장되면서 G20 회원국이 됐으며, 이슬람 세계와 서구 사회를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 또 발리민주화포럼(Bali Democratic Forum)을 설립해 개발도상국에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외교정책을 전망하려면 먼저 프라보워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1951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유력 가문의 네 자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수미트로 조요하디푸스모는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으로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대통령 정부에서 여러 장관직을 역임했다. 아버지 수미트로가 1958년 수카르노 정권에 반대해

설립한 인도네시아공화국혁명정부(PRR)가 실패하자, 프라보위는 망명생활을 한 아버지와 함께 어린시절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다. 이에 따라 프라보위는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하고 국제적인 감각이 익혔다.

프라보위는 조코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서 행정 경력을 쌓았다. 그는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10개국 이상의 국가를 방문하며 인도네시아의 차기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 기간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호주, 중동 국가 및 아세안 국가를 방문하면서 국제 외교를 익히고 각국 지도자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개방적인 자세를 보인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물론 최근 호주와 러시아 등과 군사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안보와 외교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라보위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의 외무부 조직도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는 외무부 장관 선임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인 외교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자당인 그린드라당 출신인 수기오노(45)를 중용했다. 프라보위의 측근으로 알려진 수기오노는 직접적인 외교관 경력은 없지만 국회 외교안보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만큼 초보자는 아니다. 즉 외교정책은 프라보위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한다.

프라보위는 국내 문제에 집중한 조코위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으로 외교 정책에 있어 좀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과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며 국제 무대에 정식으로 데뷔했다. 다자는 물론 양자 회담도 활발히 진행하면서 동남아시아를 넘어 글로벌로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강대국과의 외교에서 프라보위 정부는 미국과의 안보 관계에 여전히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확대하면서 균형을 맞춰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인도네시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입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또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브릭스(BRICs) 가입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강조했다.

세계는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에서, 1991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극체제로 전환됐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는 다극체제로 이행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 나라가 군사력과 경제력 및 연성권력(Soft Power) 등 갖춰야 외교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최근 전통적인 외교 중견국인 인도네시아의 경제와 군사력이 신장되고 문화적인 힘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의 외교력은 한층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vs 일본전,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원팀 응원단 구성

‘신태용호’ 인니 응원에 앞장서



FIFA 랭킹 134위의 나라에서 동남아시아 축구 강국으로 올려놓은 ‘신태용 호 인도네시아 대표팀’ 이 또 한 번 새 역사를 쓰길 기원하며 인도네시아& 한국, 원팀이 되어 인도네시아의 승리를 위해 함께 응원하는 특별 이벤트를 위해 한인사회가 나섰다.

인도네시아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신태용 감독은 2019년 부임 이후, 15년 만의 2023 아시안 컵 본선 진출 및 16강 진출, U-23 아시안 컵 최초 본선 진출에 이어 2026 월드컵 3차 예선 C조 경기에서 새로운 활력으로 지난 6월 11일, 동남아시아 팀으로는 유일하게 2026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에 진출하게 됐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신 감독이 인도네시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 많은 한인이 힘을 얻

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한국출신 신태용 감독이 매개체가 되어 인도네시아와 더욱 친밀한 이웃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11월15일 ‘글로라 봉 카르노 주경기장’에서 저녁 7시부터 펼쳐진 홈경기에 ‘원팀’의 저력과 양국의 우정을 쌓으며, 재인도네시아한인회를 주축으로 여러 한인기업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나서 South Garuda 쪽 좌석 입장권 1,300매를 구매하여 준비한 티셔츠를 입고 열렬한 합동 응원을 펼쳤다.



이날 경기장에는 시작 전부터 계속해서 내린 비에도 북을 두드리며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신태용’을 외치며 인도네시아 관중과 원팀 응원단이 하나가 되어 시종 경기장 내 열기를 더했다.

한편, 이날 경기는 일본이 4대 0으로 승리했지만 한인동포들도 끝까지 경기장에 남아 인도네시아인들과 한팀으로 신감독과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Coretax 시스템 시행 규정 PMK 81/2024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세금납부, 신고, 환급절차 등에 관한 Coretax 시스템 시행령이 지난 10월 18일 공포되었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유연한 조세 행정 시스템 개혁을 수행하려면 공정하고 법적 확실성을 지닌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총 11개 장, 484개 조항으로 예시를 포함하여 642 페이지에 방대한 내용으로 크게 7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권리 행사 및 납세 의무 이행, 전자 결정 및 문서의 발행 서명 및 전송 절차
2. 납세자 등록, 과세 사업자 확인, 재산세(PBB) 과세 대상 등록 절차
3. 세금 납부절차, 조세환급, 이자 보상, 초과세액에 대한 환급절차
4. 세무신고서 제출 및 처리 절차
5.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절차
6. Coretax System 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규칙
7. 문서 양식 예시와 계산, 보고 등에 관한 예시로 구성되어 있다.

PMK 81/2024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현재 시행되는 아래 규정은 폐지된다. 세무신고서(SPT) 규정인 PMK 243/2014, 납부해서는 안되는 초과납부세금에 대한 환급 절차 PMK 187/2015, 세금 초과납부에 대한 환급 규정 PMK 244/2015, 기업의 합병, 통합, 확장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자산 양도 및 취득을 위한 장부가치 사용에 관한 규정 PMK 52/2017 등은 PMK 81/2024 시행으로 폐기된다.

이와 별도로 개인의 경우 12월말 금융계좌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지난 10월에 기고한 세금 목적을 위한 금융정보 접근 권한 시행령 PMK No. 47 /2024 규정은 주지하여야 하겠다. 개인 연간 소득세 신고는 익년 3월말까지로 연간 수익 뿐만 아니라 12월말 재산 및 채무 상황도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순재산(재산-채무) 증가액이 소득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 자산 특히 해외 금융자산은 12월말 잔액은 꼭 확인을 하여야 하겠다. <끝>



빈 의자

누군가 다가와서
흠쳐간 추억

서러운 낙엽
눈물이 되어
의자 위로 툭툭 떨어진다

글, 이미지 김준규 시인

2024년 11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경제 비즈니스>

“프라보워, 신수도 등 대형 건설 사업 보류 지시”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수도 누산타라 프로젝트 등 정부 대형 인프라 예산을 일시적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부 장관은 지난 11월 18일 라흐맛 뽀부디와 국가개발기획부 장관과 회의를 마친 후 이 같이 결정했다며, “프라보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5년에 계획된 모든 대형 인프라 자금이 동결되었다”고 말했다.

도디 장관은 어떤 대형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을지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번 조치는 댐과 교량과 같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년 15조 루피아(약 9억 4777만 달러)의 예

산이 배정된 신수도 누산타라 건설 계획의 미래가 불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국가예산은 프라보워 정부의 우선 국정과제인 식량, 에너지, 물 안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국 1,500만 명의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71조 루피아 규모의 프로그램과 향후 4~5년 안에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하려는 계획이 포함된다.

도디 장관은 “연기된 인프라 프로젝트는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면 재개될 예정”이라며 “적절한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며, 지금은 공공 복지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애플 “인니에 약속대로 투자하겠다” 당국 “아직은...”

애플(Apple Inc.)이 인도네시아에 약속한 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애플이 약속한 금액을 모두 투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플의 최신 버전인 아이폰16의 자국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산업부 대변인은 지난 11월 21일 애플사의 투자 절차를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 아이폰16의 판매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아이폰16은 지난 9월 20일 글로벌 시장에 출시가 됐지만 애플의 인도네시아 공식 웹사이트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고, 정부는 이 제품에 대한 해외 구매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산업부 장관은 앞서 애플이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 1조7,100억루피아 중 아직 투자하지 않은 2,400억루피아가를 마저 투자해야 아이폰16 국내 판매권을 얻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또 애플이 아이폰16의 국내 판매에 필요한 국내부품사용률(TKDN) 요건인 4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인니 오피스 시장: 성장 잠재력과 과제

2024년 인도네시아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컬리어스(Colliers)가 전망했다. 컬리어스는 올해 3분기 아시아태평양 보고서에서 2024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을 내수시장 회복과 국제 투자 증가에 힘입어 5.1%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오피스시장은 높은 공실률과 낮은 임대료로 인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평가했다.

컬리어스는 자카르타의 A등급(Grade A) 오피스 공실률은 25.2%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기업들의 오피스 수요 감소와 과잉 공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컬리어스는 자카르타 오피스의 월평균 임대료는 평방미터당 16달러로, 전년 대비 6% 하락했고, 역대 주요 도시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높은 공실률로 인해 임대료 하락 압력을 받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2024년 3분기 자카르타의 신규 사무실 공급은

6만 평방미터로 소폭 증가했다. 컬리어스는 이러한 공급 증가로 기존의 높은 공실률과 맞물려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컬리어스는 인도네시아 오피스 시장은 높은 공실률과 낮은 임대료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해외 투자 유입이 시장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준수 요구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Grade A 사무실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는 2025년에도 도전 과제와 기회를 동시에 안고 있다. 컬리어스는 높은 공실률과 낮은 임대료라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투자 유치라는 기회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라보워 대통령, 농어민 장기 소액대출 탕감 규정 서명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농어민 및 중소기업 운영자들의 약 10조 루피아(6억 3,400만 달러) 규모 장기소액대출을 탕감하는 규정을 지난 11월 5일 서명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특히 인도네시아 전역의 농어민 단체의 제안을 듣고 오늘 ‘2024년 제47호 규정’을 서명하여 농업, 농장, 축산, 어업 및 해양 부문, 그리고 기타 중소기업의 부채 탕감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농어민이 1천만~2천만 루피아(약 89만~177만원)에 불과한 소액 미납 부채로 인해 은행 대출을 거절당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1998년과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생겨난 부채가 대부분이다. 은행들이 이런 부채 상당수를 이미 상각채권으로 처리했으면서도 상환 요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보

니 농어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채업자와 같은 더 위험한 대출을 찾게 돼 수백만 명이 이런 오래된 부채에 갇혀 있었다. 이번 규정은 농어민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아리프 잠로니 코코아 농민협회 회장은 “농민들이 겪는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 이는 분명히 큰 지원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한도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농어민들이 좀 더 숨 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쿨랏 마누롱 인도네시아팜오일농민협회 회장은 이번 규정 서명이 정부가 국가 식량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며, “부채는 농민들이 발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정치, 사회>

인니, VFS글로벌과 협력해 12월부터 새 전자도착비자 서비스

내달 중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7개 언어로 서비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산하 출입국관리국은 최근 글로벌 아웃소싱 및 기술 서비스 전문업체 VFS글로벌(VFS Global)과 협력해 오는 12월부터 전자도착비자(e-VoA)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출입국관리국은 입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국내외 관광산업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당국은 전자도착비자를 간소화하고 효율을 높이면 올해 자국 외국인 방문객 수가 1,4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8월 기간 외국인 관광객은 992만명이다.

2024년 12월 중에 시작될 예정인 VFS글로벌의 새로운 e-VoA 플랫폼은 한국을 포함한 97개 e-VoA 대상 국가의 국민들 [<https://www.imigrasi.go.id/wna/daftar-negara-voa-bvk-calling-visa>]이 이용할 수 있다.

두바이에 본사가 있는 아웃소싱 및 기술 서비스 전문업체 VFS글로벌은 전 세계 정부와 외교 공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비롯한 혁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조만간 인도네시아 여행자들은 출발 전에 온라인

으로 전체 수속을 완료하고 사전 승인된 e-VoA를 받음으로써 VFS글로벌을 통해 더 빠르고 원활한 비자신청 과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VoA는 여행에 앞서 VFS글로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여행자들은 출발 전에 이메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여행자들은 온라인으로 결제한 다음 전자 게이트 또는 입국 카운터를 통해 더 원활하고 빠른 입국 절차를 받을 있게 된다.

실미 까림 법무·인권부 차관은 “출입국관리국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양질의 입국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이라면서 “이는 국내외 관광객을 늘리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VFS글로벌을 통해 인도네시아 e-VoA를 신청한 여행자들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아랍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7개 언어로 된 전용 이메일과 실시간 지원을 받아 문의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VFS 글로벌은 적절한 시기를 통해 핵심 시장에 더 많은 언어 지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의사 부족 인니, 인도에 의사 부족 해결 도움 요청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최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인도네시아가 충분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고 지난 11월 1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담 중 모디 총리와 만난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가 인도와 보건 분야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며 “인도 출신 전문 의사들이 인도네시아 의과대학

에서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고 말했다.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는 현재 16만명가량의 의사가 부족하다” 며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인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또 인도 의대 교수를 초청해 국내 대학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8,000명의 의대생이 졸업하는데, 이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앞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올해 초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도 같은 요청을 했다. 당시 프라보워는 푸틴에게 인도네시아 청년들을 러시아로 보내 의학을 공부하게 할 대규모 장학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또한 모디 총리와의 대화에서, 인도네시아가 외국 병원의 운영에 개방적이며, 특히 특별경제구역(SEZ) 내에서 외국 의료기관이 현지에 병원 설립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특별경제구역은 투자자들에게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지정된 지역이다.

프라보워는 “우리는 보건 분야를 개방하고 있으며, 외국 의료기관이 인도네시아 현지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의 다국적 헬스케어 그룹인 아폴로병원이 이미 바탐 보건·관광 특별경제구역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며, 이 프로젝트는 2026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인도네시아의 국민들은 매년 약 200만 명이 해외로 의료관광을 떠나며, 그 중 100만 명이 말레이시아, 75만 명이 싱가포르행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100만 고객의 선택

결과로 '증명'하는 **약손명가**

한국 126지점 해외 16지점 45년 전통 글로벌 에스테틱 브랜드



얼굴 관리



바디 관리

맞춤관리



석교 비교를 통해 믿을 수 없는 변화를 느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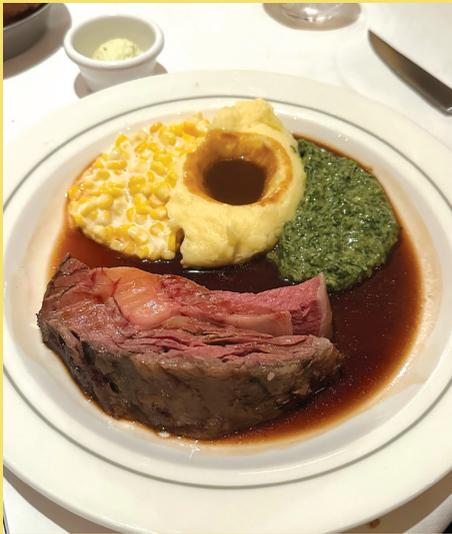
- 매끄러운 얼굴 라인
- 리프팅 효과로 젊고 생기 있는 외모
- 또렷한 이목구비
- 균형 잡힌 얼굴과 탄력 있는 피부.



— 여기가 맛집! —

Lawry's The Prime Rib Jakarta

황지영 (자카르타 거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올해 마지막인 12월 원고를 쓰고 있네요. 좀처럼 오지 않을 것 같던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12월은 연말 약속도 많고 크리스마스 등등 식사 자리가 참 많아서 바쁘실 텐데요. 바쁜 와중에 올 한해 수고한 나를 위해 나를 위한 맛있는 선물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올 한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고 대견하잖아요. 맛있고 비싼 음식 먹으며 나를 더 격려하고 새롭게 다가올 해를 힘차게 맞이할 에너지를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 자신을 격려하고 보상해 줄 만한, 또는 크리스마스에 소중한 사람만 오붓하게 데이트하기 좋은 스테이크 맛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Lawry's The Prime Rib, Jakarta라는 곳인데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이 스테이크집을 가보고 그 맛에 적잖이 충격 받아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가보고 싶다고 늘 생각했는데 자카르타에도 오픈을 했더라고요. Lawry's는 미주를 비롯해 아시아에는 홍콩, 서울, 싱가포르 등등 여러 지점이 있는 스테이크 하우스인데요. 이 식당은 1938년 비벌리힐즈에서 시작된 아주 역사가 유구한 식당입니다. 후에 lawr's 시즈닝 소금 판매로 재미를 봐서 미국에서는 이 시즈닝 소금으로 더 유명하기도 합니다. 내부적인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우드



를 사용하며 바닥 또한 마루 바닥이라 미국의 앤틱 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들로 구성해서 어둡지만 따뜻한 느낌이 났습니다. 전형적인 미국의 고급 스테이크하우스 느낌이 나서 잠시나마 미국 여행을 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식당은 스테이크 뿐만 아니라 해산물 그릴 또한 유명한데요. 하지만 유구한 역사는 스테이크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저는 오늘 스테이크 메뉴만 설명하겠습니다. 단품으로 스테이크도 시킬 수 있지만 이 식당의 시그니처인 통구이 스테이크에서 바로 잘라주는 은색 카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Lawry's Classic Prime Rib Dinner에서 ~cut 메뉴를 주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70g을 제공하는 Jakarta Cut (775,000 루피아++)부터 800g의 Beef Bowl Double Cut (1,880,000 루피아++) 까지 그램 수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되지만 제공되는 사이드는 똑같으니 그램 수만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Cut을 시키면 먼저 Lawry's Spinning Bowl Salad가 나오는데요. 웨이터가 얼음을 가득 채운 큰 볼 위에 샐러드를 담은 샐러드 볼을 얹고 이 샐러드볼을 돌려서 소스를 뿌립니다. 그리고 소스와 함께 샐러드를 버무리는데요. 특별한 맛은 없지만 퍼포먼스적인 요소 때문에 눈이 즐거웠고 얼음 위에서 바로 소스와 비졌기 때문에 더욱더 신선하고 시원한 샐러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스는 일반적인 시저 샐러드에서 사용되는 케첩 마요를 사용한 것 같았어요. 특별할 것 없는 맛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조리해 주는 퍼포먼스와 서비스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Lawry's의 Prime Rib은 미국 농무부의 인증을 받은 블랙 앵거스 품종의 최상급 고기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가게의 시그니처이자 자랑인 은색 카트는 고기를 통구이하는 오븐인데요. 주문하면 이 카트를 옮겨 다니며 셰프가 바로바로 커팅 해 주다 보니 옮겨 다니는 작은 주방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은색 카트가 자동차 한 대 값 보다 더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한화 4천 5백만원쯤이라고 웨이터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셰프가 오븐을 열면 여러 통구이가 보이는데 익힘 정도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셰프가 주문서에 고기의 그램수와 익힘 정도를 확인하고 눈대중으로 쟀 후에, 통구이를 썰어서 접시에 얹어 주는데요. 저는 미디엄 웰던을 시켰습니다. 스테이크를 어떠한 소스 없이 그냥 먹어도 약간 짭조름한 간이 되어있었는데요. 식감이 제가 살면서 먹었던 스테이크 중에 가장 부드러웠습니다. 먼저 수비드를 하고 익힌 건가 싶지만, 최고급 블랙 앵거스를 4주 정도 숙성하고, 고기 시즈닝과 마리네이드(고기절임)을 한 후에, 10kg 고기를 통째로 시어링 해서 약 섭씨 100도에서 저온으로 오븐에서 5시간을 천천히 구워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기에 육즙이 잔뜩 가워진 채로 익어서, 부드러운 식감과 맛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스테이크를 잘라낼 때 보면 흐르는 육즙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오랜 시간 굽다보니 겉이 정교하게 익어서 스테이크 특유의 탄 느낌이 아예 없었고, 속은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입에 들어가면 그냥 녹아버렸습니다. 사실 특별한 소스 없이도 고기 본연의 풍미와 육즙을 강하게 느낄 수 있어서 화려하게 조미료 포장하지 않은 스테이크의 근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으로 구우니 다른 스테이크하우스처럼 손바닥만 한 크기로 구워서 고기 표면에 불에 그을린 자국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타지 않았으니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고기를 먹는 죄책감을 조금 덜기도 했습니다. 하하 통구이로 요리하게 되면 그날 팔지 못한 것은 다 버려야 하는 어려



움이 있지만, 이런 대담한 시도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런 통구이 방식을 고수하는 점에서 스테이크에 꽤 진심인 집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스테이크를 썰어줄 때 셰프가 사이드 메뉴도 스테이크 접시 위에 같이 주는데요. 그레이비 소스를 바닥에 깔고 스테이크를 올린 후 그 옆에 크림 시금치, 메시 포테이토, 옥수수 샐러드를 줍니다. 메시 포테이토는 약간의 구멍이를 만들어 그 구멍이를 또 그레이비소스로 채워 주고요. 스테이크와 곁들이는 이 모든 사이드 디쉬 또한 나무랄 것 없이 맛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각자의 요리만의 본연의 맛을 잘 살려낸 것 같아서 역시 역사가 깊어서 기본기가 탄탄한 클래식한 식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식사 후에 디저트로 Classic Yorkshire Pudding Lawry's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는 차가운 젤라틴이 많은 푸딩이 아니라 약간 페이스트리 같은 느낌의 계란 맛이 많이 나는 푸딩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푸딩을 스테이크 소스에 찍어 먹으니 감칠맛이 최고였습니다. 디저트보다는

식사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새로운 느낌의 푸딩이라 아주 만족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며 연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올해도 기쁨과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겠지요. 하지만 저는 원고를 쓰는 그 시간들만큼은 행복과 기쁨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맛집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저는 새해에도 항상 맛있고 예쁜 맛집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내년에도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식당 정보 : <Lawry's The Prime Rib, Jakarta>

음식 종류 : 양식

가격대 : Rp 800,000-1,000,000 /2인 기준

영업 시간 : 월~금 오전 11:30- 오후 15:00

오후 17:30- 오후 21:30

주소 : Jl. Bumi No.15, RT.3/RW.2, Gunung,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120

※ Google 참고



JIKS 초등 스포츠데이 행사 - 협동과 끈기가 땀으로! -



2024년 11월 1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이선아) 초등과정에서 스포츠데이 행사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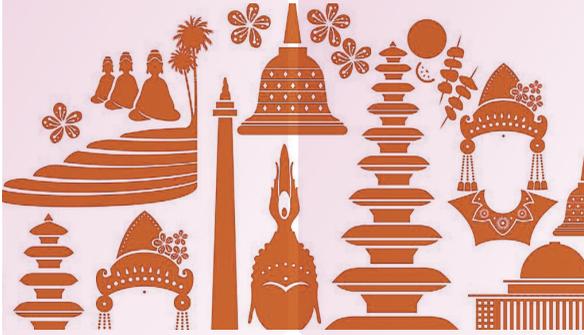
지난 11월 1일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한데 어우러진 스포츠데이 행사가 운동장, 테니스 코트, 체육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아이언맨, 슈퍼맨, 헐크의 세 팀으로 나뉜 학생들은 스포츠 정신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교장선생님의 말씀과 전교회장단의 선서, 그리고 체육선생님과 함께하는 준비운동으로 모두 스포츠데이의 멋진 시작을 알렸다. 1-3학년 학생들은 강당에서 다양한 신체활동을, 4-6학년 학생들은 피구, 축구, 농구 경기를 하며 멋진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중간 쉬는 시간에는 5, 6학년 학생들의 K-pop 댄스 공연과 뒤를 이어 학부모 줄다리기 경기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의 열띤 응원으로 학부모님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줄다리기 경기에 임해 안전하고 재미있게 학부모 경기를 마쳤다.

스포츠데이 행사를 맡은 Flor 선생님은 학생들의 스포츠맨십과 팀워크, 열정이 멋진 스포츠데이를 만들었고,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데이 행사가 되도록 해주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였다.

본 행사는 학교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uF5V9pcDIk0>)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지난 호에 이어

“어서 오세요. 세랑 왕자님!”

슬라롱의 본진에선 디포네고로 왕자는 물론, 끼아이 모조와 망꾸부미 왕자 등 디포네고로군 수뇌들이 모두 나와 병사들을 인솔하고 들어오는 세랑 왕자를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계속된 전투로 너털너털해져 있었지만 세랑 왕자는 믿음직한 미소로 그들의 환대에 답했고 디포네고로의 삼촌 백인 그는 이후에도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드록 장군은 디포네고로의 슬라롱 본진을 포위하려 했지만 먼저 스마랑, 바글렌, 꺼두, 반유마스 마디운, 수라카르타 등지에서 벌어진 농민군의 저항에도 맞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디엘 중령(Letkol Diell)! 자네는 반유마스의 반군들을 진압하고, 클리렌스 중령(Letkoll Cleerens) 자네는 뜨갈과 빼갈롱랑으로 나가 적들이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게 하시오!”

“사령관 각하, 그렇게 군대를 나누면 슬라롱의 디포네고로군 본진을 칠 병력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을 잠시 포기하고 슬라롱 공격에 집중하심이...”

“적들이 우리 배후를 따라잡게 놔둘 수는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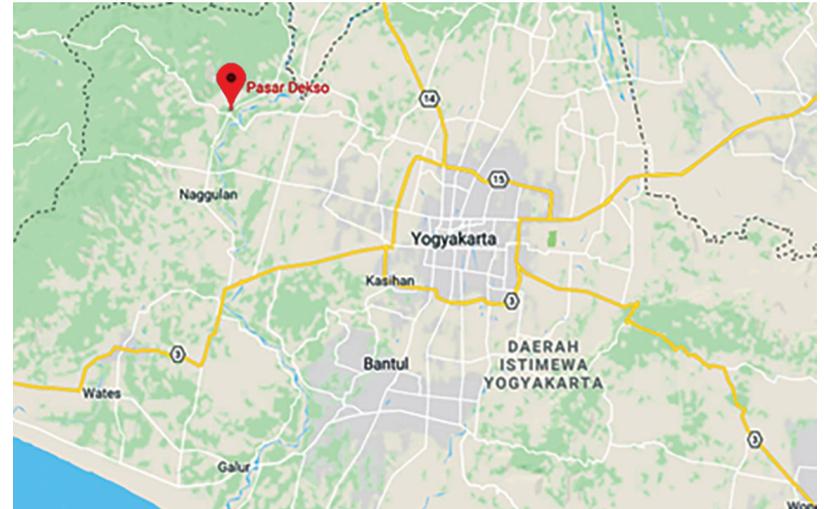
일이요. 저들을 방치하면 우리가 슬라롱에서 섬멸전을 벌이는 동안 족자를 동서 양쪽에서 압박해 오게 될 것이요.”

디포네고로 왕자의 봉기에 동조해 자바 전역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백성들의 반란은 네덜란드군이 자바섬 밖에서 힘겹게 소환해온 병력들을 적절히 분산시키며 디포네고로군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825년 10월 2일과 4일에 대대적인 슬라롱 공격이 감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디포네고로는 미리 공격정보를 파악해 한발 앞서 텍소(Dekso)로 본진을 옮겼고 부녀자들과 노인, 아동들은 수웰라(Suwela)라는 지역으로 소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텅 빈 슬라롱에 도달한 네덜란드군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으므로 디포네고로군의 정보력과 기동력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디포네고로가 심어놓은 눈과 귀가, 산과 들은 물론 그들의 부대 안에 있을 것이란 의구심이 네덜란드군 고위 장교들 사이에 팽배했습니다. 디포네고로는 그 사이 텍소에 본진을 갖추고 부대를 재편하면서 다음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네덜란드군 클리렌스 대령



텍소

1825년 말 디포네고로군은 이모기리를 공격하던 네덜란드군을 격파했고 족자술탄국 동쪽 지역에서는 뚜명궁 수로네고로(Tumenggung Suro-negoro)가 이끄는 군대가 네덜란드군 방어선을 무너뜨리며 많은 소총과 화포들을 노획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족자 술탄국 서편에서는 전열을 정비한 네덜란드군이 텍소의 디포네고로군 본진을 포위해 들어왔습니다. 치열한 방어전에서 적잖은 인명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디포네고로군은 네덜란드의 예봉을 잘 막아냈습니다.

빨레레드(Plered)는 1677년 마두라의 프루노 조요 왕자가 이끈 반란군에게 함락되기 전까지 마타람 까르타수라 왕국의 수도였던 곳으로 왕가의 인물인 디포네고로 왕자에게 매우 의미깊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포네고로는 1825년 빨레레드를 손에 넣은 후 몹시 기뻐하며 텍소의 본진을 빨레레드로 옮겨오기까지 했습니다. 디포네고로군이 이동과 기동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릴라전 위주의 군대였다 해도 본진의 잦은 이동이 번거롭지 않을 리 없었지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빨레레드에 입성했습니다. 그곳에서 디포네고로 왕자는 모든 백성들과 귀족들, 이슬람 율라마들의 강권에 따라 ‘자바 땅의 술탄 압둘하미드 헤루짜

끄라 아미룰묵미닌 사이딘 빠나따가마 칼리파톨라’ (“Sultan Abdulhamid Herucakra Amir-ulmukminin Sayidin Panatagama Kalifatullah Tanah Jawa)라는 칭호의 술탄으로 추대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스스로에게 붙였던 ‘압둘 하미드’라는 이름도 녹아든 이 긴 칭호는 그가 자바의 칼리파임을 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옛날 아버지 하명꾸부위노 3세의 임종 당시 약속했던 것처럼 족자 술탄국이라는 일개 왕국의 국왕이 아니라 자바 전체를 아우르는 이슬람 왕국의 술탄이 된 것입니다. 그는 빨레레드에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1826년 4월 16일에 망꾸느가라안 봉국의 군대가 쳐들어와 디포네고로군의 빨레레드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일단 순순히 후퇴한 디포네고로군은 얼마 후 네덜란드가 물러난 후 다시 빨레레드를 차지했지만 그해 6월 6일 마두라 군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코치우스 대령(Kol Cochius)의 네덜란드군과 족자 끄라톤에서 출정한 수리아 왕자(Pangeran Suria), 수리아디닝랏 왕자(Pangeran Suryadiningrat)가 빨레레드를 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블레레드 전투 삽화
(<https://en.wikipedia.org>)

하지만 블레레드의 강고한 방어력에 네덜란드의 초반 공격은 무위에 그쳤습니다. 블레레드의 방어선엔 용맹스러운 소년이 활약하고 있었는데 총사령관 ‘알리 바사 뿌라위라디르조(Ali Basah Prawiradirjo)라 불리는 센똣 뿌라위라꾸수마(Sentot Prawirakusuma)였습니다. 그는 당시 19살이었어요. 디포네고로의 다섯 번째 부인 라덴 아우 렛나닝시의 이복동생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명꾸부워노 2세의 사위이자 디포네고로 왕자의 장인어른이기도 한 라덴 롱고 뿌라위로 디르조(Raden Ronggo Prawirodirdjo)였고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일찌기 마디운 반란의 수괴로 몰려 덴덜스 장군(General Daendels)에게 죽임을 당한 인물입니다. 그런 이유로 네덜란드를 극도로 미워한 센똣이 일찌감치 디포네고로군에 합류해 끼아이 모조, 망꾸부미 왕자에 못지않은 중요한 직책에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6월 9일 네덜란드군이 강력한 폭탄을 터뜨려 성벽 일부를 무너뜨린 후 성안으로 밀려들자 전황은 디포네고로군에게 급격히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된 전투에서 많은 희생자를 낸 디포네고로군은 크게 패한 채 물러나야 했고 네덜란드군은 블레레드 수비를 위해 700명의 병력을 남겨두었으나 디포네고로군은 더 이상 탈환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Gambar 10. Patih dan Sultan Madura mendiskusikan rencana pengiriman tentara untuk membantu Belanda

디포네고로 전쟁 네덜란드 지원을 협의하는 마두라 술탄과 재상 (<https://m.kiblat.net>)

1826년 7월 8일 네덜란드군은 블레레드 승전의 여세를 몰아 다시 텍소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미리 정보를 입수한 디포네고로는 이미 까수란(Kasuran)으로 본진을 옮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네덜란드군을 회피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텍소를 더 이상 점령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네덜란드군이 7월28일 족자로 철수하던 길에 디포네고로군은 회심의 기습 작전으로 적 부대의 허리를 끊었습니다.

“알라후 악바르!”



센쫏 알리바사

신은 위대하다고 외치며 수풀 속에서 느닷없이 뛰어나와 아귀처럼 달려드는 디포네고로군은 앞서 몇 번의 승전으로 자만에 차있던 네덜란드군을 강타했습니다.

“적장을 잡아라! 뽀레레드에서 당한 것을 철저히 갚아 주어라!”

이 전투에서 코치우스 대령과 족자 끄라톤의 두 왕자가 처참하게 전사했고 네덜란드군 사령관 환긴(van Geen)은 간신히 목숨만 살려 수하 몇 명과 도주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네덜란드군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 디포네고로군은 또다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이후 1826년 내내 네덜란드와 망꾸느가라안 봉국의 군대들을 맞아 승승장구했습니다. 바글렌에서도 농민군이 네덜란드군을 몰아냈고 끄지완(Kejiwan)에서도 베이 왕자(Pangeran Bei-조요꾸수모 왕자)가 승전보를 전해왔습니다. 족자 북동부 방향의 들랑구(Delanggu) 지역에서는 양쪽의 대군이 맞붙는 매우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전황이 디포네고로군에게 크게 유리해지면서 네덜란드군을 헤치고 나가 결과적으로 ‘들랑구 대첩’이라 불려 마땅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여기서 디포네고로군은 수십 정의 소총과 12문의 화포를 노획했습니다.

그후 한동안 네덜란드군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자 디포네고로군 전략고문이 되어 있던 끼아이 모조의 제안에 따라 디포네고로 왕자는 수라카르타 지역에서 망꾸느가라안 봉국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조직했습니다. 네덜란드측에 가담해온 망꾸느가라 2세를 응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술탄 전하,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노술탄께서 족자에 돌아오셨다는 것 말입니다.”

수라카르타 접경의 동쪽 지역으로 군대가 이동하던 중 알리바사(사령관) 센쫏 뿌라위로꾸수마가 디포네고로 왕자의 말을 따라잡으며 우려섞인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일찍이 영국이 유배시킨 노술탄 하명꾸부위노 2세를 네덜란드가 족자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빼냥섬에 사람을 보냈다는 소문이 그 사이 자바 술탄국 전역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1826년 9월 21일 족자에 도착해 다시 술탄으로 즉위한 것입니다.

“하명꾸부위노 5세 전하를 폐위하고 노술탄께서 다시 즉위하셨다는 소문에 귀족들 사이에 동요가 있습니다. 특히 망꾸디닝랏 왕자님은 끄라톤으로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모양이군요.”

노술탄과 빼냥섬에 함께 유배되던 중 탈출해 우여곡절 끝에 족자 술탄국에 돌아온 망꾸디닝랏 왕자는 디포네고로군의 정예부대 중 하나인 삼비로조(Sambirojo)의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하명꾸부위노 왕가의 상당한 위치에 있던 그의 동요는 디포네고로군 전체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분으로선 다시 뵐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아버님이 돌아오셨으니 만감이 교차하겠지.”

다음 호에 계속

한방

지난 호에 이어

생활 한의학4-(1)

전통의학은 과학인가 미신인가

한의학은 전통의학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인체를 치료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전통의학 또한 진단기계와 치료기계의 도입, 그리고 새로 밝혀진 이론들이 접목되어 예전보다 발전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미용에 관련된 시술법이나, 일부 질병의 치료에 한해서 진전이 있었을 뿐, 예전같이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 한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한의원은 관절이나 근육문제가 생겼을 때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 역시 한의학의 발전 방향과 연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의서에 수록된 질병들을 보면 당뇨병, 간염, 통풍, 폐결핵 같은 질병을 다스린 처방과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의원에서도 다스릴 수 있는 중증질환인 당뇨병, 통풍, 심장병, 면역질환 등은 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언뜻 보면 한의학은 계속 발전해 온 것 같지만, 실상을 예전과 비교해보면 옛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퇴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것이 잘 이어지고 보존만 되었어도 한의원은 발목이나 허리를 삐끗했을 때 가는 곳, 담이 걸렸을 때 가는 곳, 부작용이 적은 미용시술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의학의 전통적인 진료방법은 4가지 방법으로 진찰한다 하여 4진이라 하고, 4진은 망문문절(望聞問切 -보고, 듣고, 물어 보고, 맥을 짚는다)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진찰할 때 望-얼굴표정, 걸음걸이, 혈색을 관찰하고 聞-목소리와 숨소리를 관찰하고 問-증상이나 특이사항을 물어보고 切-진맥을 짚어서, 이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합니다.

저는 4진에 환자분들의 체질을 살펴서 성향과 습성을 구분하고, 정보들을 종합하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글: 미르한의원 원장 서상영

간혹 진료를 마치고 신기 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하지 않은 내용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반응입니다.

사실, 진료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토대로 유추한 내용이라 다 맞을 순 없습니다. 자라온 환경, 겪어온 경험들, 자신의 신념 등에 따라 같은 집에서 자라난 형제라도 살아온 삶의 스토리는 틀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인격체를 형성합니다. 인생자체가 다사다난 하고, 사람이라는 동물의 감정과 사고영역이 복잡하기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나 논리, 근거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로 객관성을 배제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아래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신의 사전적 의미: 과학적 관점에서 헛된 것으로 여겨지는 믿음이나 신앙이다. 마음이 무엇에 끌려서 잘못 믿는 것 또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에 대한 맹신을 의미

한의학의 진단과 치료가 미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한학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탐구해 보면 미신과는 동떨어진 학문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인체는 소우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만물의 이치를 관찰하고 공부하여 소상히 알면 인체도 보이게 됩니다.

자연과 인체가 둘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을 모두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밝혀져 왔고 앞으로도 많이 밝혀지겠지만, 아직 남아있는 수수께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의학이 “음양오행, 자연과 우주의 이치를 담고 있는 대단한 학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의학이 미신이라는 프레임을 씌울만한 학문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죽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여정

글: 조은아 편집위원



또라자의 장례문화가 전세계적인 관광상품이 된 것은, 1970년대 또라자의 순수 혈통이었던 상알라 Sangalla의 마지막 귀족 장례식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통해 공개되면서 부터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마네네 Ma' nene라 불리는 행사가 치러지는 7월과 8월에는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수만명의 관광객으로 작은 산골마을 또라자 전체가 들쭉인다. 마네네는 매장한 시신을 다시 꺼내어 닦고 머리 손질을 하고 옷을 갈아 입히는 의식으로, 그들에게는 죽은 이를 다시 만나는 즐거운(?) 행사다.

장례식을 마친 시신은 똥꼬난을 닮은 상여에 실려 각자의 가족묘로 옮겨진다. 또라자는 높은 산맥속에 자리하지만 푸른 나무산이 아닌 바위산이다. 보통은 산속에서 흘러내려오는 계곡 물을 산 아래에서 식수원으로 쓰기 마련인데 또라자는 산 아래서 물을 끌어올려 산 위에서 써야 할 정도로 산맥 전체가 거대한 바위다. 때문에 이들은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바위를 뚫어 관을 넣고 네모난 문을 달아 마무리한다. 마네네를 위해 시신을 다시 꺼내기에도 편리하다.

또라자의 살아 있는 박물관 '케테 케수Kete Kesu'

또라자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 케테 케수 마을은 입구에서부터 똥꼬난이 양옆으로 웅장하게 늘어서 있다. 안쪽으로 들어서면 귀족들의 무덤이 한 채씩 지어져 있고 유리벽 안에 그들의 타우타우tau-tau와 생전 그들의 업적도 액자로 잘 설명되어 있다.

안쪽으로 더 들어서면 절벽으로 오르는 계단이 보인다. 절벽에는 오래되어 부서진 관들과 그 사이로 보이는 뼈들이 수북하다. 얼마나 오래된 것들인지 그곳을 지키는 이들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 높은 절벽에 난간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로 만든 관에 시신을 넣어 엮어 두었는데 비바람과 시간에 삭은 관이 부서지면 쏟아져 나온 뼈들은 다시 그 옆 관에 넣는다. 그렇게 섞인 오래된 해골과 뼈조각들이 수북히 절벽에 매달려 있다. 중턱에는 타우타우들을 모아두고 철창으로 잠



귀 두었다. 계단을 오르며 자꾸 위를 쳐다보게 된다. 부서진 관에서 죽은 이의 뼈가 내 머리위로 떨어지진 않을 지 내심 불안해하며 계단을 오르내렸다. 이방인에게는 낯설고 두렵지만 그들에게는 자연과 삶, 죽음이 조화롭게 얽힌 또라자 문화였다.

1100여년 이어온 가족묘 '론다Londa'



‘론다Londa’는 또랭계 일족Marga tolengke의 가족 무덤이었다.

1100여년전부터 또랭계 일가의 시신들이 이 죽음이 숨 쉬는 동굴에 묻혀져 왔다고 한다. 론다를 지키는 이들도 그 근처의 기념품가게, 식당, 매표소 등 일대의 모든 상권을 또랭계 일가의 후손들이 일구고 있었다.

론다는 거대한 석회암 동굴이다. 역시 이 곳에도 절벽에는 타우타우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로 열린 동굴로 들어서자, 동굴 안 뽁뽁이 관과 해골

과 뼈조각이 수북했다. 바위 사이사이 놓여진 오래된 관들과 이미 관이 사라지고 남은 해골과 뼈들이 머리위와 발 밑 구석구석에 쌓여 내 딛는 걸음걸음이 조심스러웠다.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관은 2주전이라 했다. 햇살이 닿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동굴안에는 묵직한 정적과 함께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신비로운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밖으로 나와 반대편 산책길로 돌아 입구로 나가며 바라보니 겉으로 보이는 절벽에도 여러 개의 구멍이 보였다. 모두 시신을 보관하고 있는 구멍인데 지위가 높을수록 높은 절벽에 매장한다고 했다. 기념품 가게 주인인 또랭계의 후손에게 이곳에서 생활을 하면 무섭지 않느냐 물었다. 그는 “모두 우리 조상들인데 무섭지 않다. 후손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영혼을 상징하는 나무 조각상 타우타우Tau tau

또 다른 절벽 무덤인 램보Lembo를 찾았다가 대를 이어 타우타우를 만들고 있다는 안톤 아저씨를 만났다. 사진 기술이 없던 예전에는 똑 같은 모양의 나무 인형으로 생전에 좋아하던 옷을 입혀두었는데, ‘사진’이 생기고 나서는 사진을 두고 생전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외부 작업장에서는 타우타우 기념품을 만들고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진짜 타우타우는 집에서 혼자 만든다고 했다. 이미 안톤 아저씨는 세계 각지에서 찾은 관광객들과 취재진에게 유명인사였다. 세계 여러나라의 언어로 발행된 잡지와 신문에 있는 자신의 기사를 펼쳐 보이며 자랑했다.

타우타우 *Tau-tau*는 또라자의 장례문화에서 고인의 영혼을 상징하는 나무 조각상이다. 타우타우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고인의 생전 모습을 재현한 상징적 존재로, 주로 고위 계층이나 부유한 사람들의 장례를 위해 만들어진다. 고인이 생전에 입었던 옷을 입히고 얼굴 특징까지 정교하게 조각해 고인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며 고인의 영혼이 조상들의 세계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로 여겨진다. 암벽에 위치한 무덤 입구나 동굴 앞, 절벽에 배치된다. 타우타우는 섬세한 조각기술로 제작되는 독창적인 또라자 전통의 상징물로 국제 수집가나 박물관 등의 큰 관심을 받아 암시장에서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타우타우 한 개의 시장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부 현지 주민이나 외부인이 타우타우를 훔쳐 해외로 밀반출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또라자 사람들은 타우타우를 도난당하면 고인의 영혼이 방황한다고 믿는다. 이는 가족과 공동체에 주는 정서적 고통이며, 또라자 전통 유산, 문화적

자산의 손실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또라자 지방 정부와 공동체는 이러한 도난 사건을 막기 위해 타우타우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원래의 타우타우를 복제품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도난품 거래를 막기 위해 국제적인 문화재 보호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한다.

바투 뚜몽아 *Batu Tumonga*, 신들의 정원

절벽과 동굴에 타우타우까지 세운 고위층 혹은 부자들의 매장지가 아닌 서민들의 매장지인 바투 뚜몽아에 오르는 길은 꽤 험했다. 돌 산에 길을 뚫기도 쉽지 않으니 산 꼭대기까지 오르는 길이 꽤 좁고 구불구불한 비포장 길이었다. 하지만 정상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아...’ 하는 감탄사를 내뱉지 않을 수 없었다.



올라가는 길 내내 발 밑으로는 똥꼬난들의 모습이 펼쳐지더니, 논밭과 산악지대가 맞닿는 곳부터는 바위들마다 고인을 모신 바위 무덤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부슬비가 내리고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 안은 그 위로 오르자 마치 천국의 문이 열리는 듯한 풍경이 펼쳐졌다. 거대한 바위 하나가 마치 지면의 공동묘지를 바위에 옮겨둔 것처럼 바위 아래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작고 네모난 문들이 바위 전체를 둘러싸고 빼곡했다. 그 작은 네모난 문 안에는 고인의 시신과 관, 유품들이 들어있고 문 앞에는 고인의 기념하는 기도문, 사진, 그들이 좋아하던 먹거리 음료수 병들이 놓여 있었다. 이곳은 또라자의 정상이지만 또 다른 또라자 문화의 정점이었다.

바투 뚜몽아에서 내려오는 길에 물소의 뼈가 세 줄이나 가득 전시된 똥꼬난을 만났다. 마침 주인으로 보이는 분이 마당에 나와 있기에 차를 세우고 안을 둘러보아도 되는지 물었다. 주인은 매우 상냥하게 허락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안에 안치되어 있으니 인사해도 좋다” 고 했다. 형제들과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장례식을 내년쯤 치를 예정이라고도 했다. 우리는 정중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양하고 발길을 돌렸다. 차마 며칠 전 방부 처리되어 흰 천에 싸인 시신을 마주할 용기가 아직은 없었다.

나무 어머니가 키우는 아기 영혼들

이가 나기 시작한 아이부터 성인은 일반 매장 방식에 따르지만 이도 채 나지 않고 죽은 신생아들은 나무를 그들의 마지막 안식처로 삼았다. 살아있는 나무를 파서 아기의 시신을 안치하고, 시간이 지나 나무가 자라면서 아이의 영혼이 자연 속으로 스며들기를 바랐다.

과거 아룩 또도로 *Aluk Todolo* 공동체에서는 아기가 죽으면 타라 *Tarra* 나무에 묻었다. 이는 죽은 아기를 어머니의 자궁으로 돌려보내는 형태로 타라 나무는 어머니를 상징한다. 타라 나무의 굵은 기둥에 네모난 구멍을 뚫고 아기를 자궁 속에 있는 것



처럼 옷도 입지 않은 채 앓은 자세로 넣고 나뭇가지로 사각형의 문을 단다. 아기는 나무 수액에 녹아 스며들어 나무를 키우고 아이는 나무와 함께 푸른 잎으로 자라 햇살에 반짝인다. 한 나무에 여러 개의 아이 무덤을 만들 수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의 아이일수록 나무의 높은 곳에 묻힌다.

이렇게 아이가 묻힌 나무를 *Baby Kambira Grave*라고 부르며, 과실리란 *Passiliran*이라 하는 이 전통은 70년대에 마지막 아기를 묻는 데서 끝이 났다고 한다.

머리끝이 보이지 않은 만큼 높은 나무에 군데 군데 검은 나무문을 단 어머니 나무를 올려다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이 나무가 숨쉬는 순간순간, 이 촉촉한 기둥과 줄기, 나뭇잎 하나에도 엄마 젖도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떠난 핏덩이 아기들의 몸과 뼈와 영혼이 녹아 있을 것이란 생각에 차마 손을 대서 나무를 만질 수도 없었다.

또라자를 지키는 분뚜 부라케 *Buntu Burake*

아침 일찍, 우리는 부킷 부룽카 *Bukit Burungka* 정상에 서있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는 예수상 *Buntu Berake*을 찾아갔다.

이들동안 얼마나 많은 죽은 이들의 흔적을 쫓았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르는 이들의 공동묘지에서 사진을 찍어 본 적이 또 있었던가 헛웃음이 나왔다.

과거 인도네시아를 지배했던 네덜란드는 향신료와 커피의 천국이던 술라웨시에 이슬람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민족주의가 거세지자 고산지대 토라 부족에게 기독교를 전파해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려 했다. 국가 개념보다는 부족 개념이 강했던 당



시 토라자인들은 마카사르, 부기스 족에 맞서 많은 수가 기독교로 개종했고 독립 후에는 수카르노 정부와 대립하던 이슬람 반군이 술라웨시까지 들어와 게릴라 활동을 벌이는 데에 대한 반발로 더 많은 수의 토라자인들이 기독교에 편입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토라자 인구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산 정상에 서 있는 40m의 거대한 예수상은 양 팔을 벌리고 또라자를 굽어보고 있었다. 죽음 이후에도 영생을 누린다는 아룩 또돌로 부족들의 믿음은 예수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는 기독교와도 통해 있는 듯 했다.

예수상 아래에서 만난 두 여인에게 ‘가난한 이들의 장례’에 대해 물어보았다. 수천만 루피아나 하는 값비싼 물소를 살 수 없는 이들은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지, 또라자 일정의 막바지에 궁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들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다. 영생을 믿고 죄의 용서와 부활을 믿지만 돈이 없

어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물소를 사지 못하면 돼지를 사도 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닭이나 물고기를 잡아 죽은 이가 떠나는 길을 축복해주면 된다” 고 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 이제는 그러한 화려한 장례잔치 없이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예수상의 발치에서 내려다보니 또라자의 대자연을 한눈에 들어왔다. 자연, 그리고 인간의 경외감이 이곳에서 하나로 녹아든다. 죽음과 삶, 자연과 인간,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또라자는 단순히 발길을 옮겨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을 영원의 땅이었다.

마카사르로 다시 돌아오는 길은 아침에 출발하는 버스를 탔다. 갈 때는 캄캄한 어둠속에 숨어있던 또라자의 대자연이 장대하게 펼쳐져 있었다. 높고 깊은 바위 산골을 달리고, 평야와 어촌들을 지나... 12시간. 아침 8시에 또라자를 출발한 우리는 밤 8시나 되어서야 마카사르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아세안 10개국과 미래 교통협력 방안 논의 ‘제15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2일 오전 9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열리는 ‘제15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과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했다.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는 09년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한 이래, 매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모여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되어왔다.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올해 교통장관회의에서 박 장관은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의 로크 시우 폭(Loke Siew Fook) 교통부 장관과 한-아세안 교통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양측의 협력방안을 담아낼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2026-2030)’의 수립 계획을 아세안 회원국 교통분야 장관들과 공유했다.

* 對아세안 교통협력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관심사업 중 우리기업 참여 및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실행계획 등 제시 ‘아세안 대중교통 디지털격차 분석 연구’ 등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분야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교통장관회의 기간(11.21~22)에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 로크 시우 폭(Loke Siew Fook)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폐낭국제공항 확장사업, 폐낭 LRT 차량 사업 등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말레이시아 알렌산더 난타 링기(Alexander Nanta Linggi) 공공사업부 장관과 한국의 고속도로 무정차 톨링 시스템(Hi-pass)을 활용한 다차로 하이패스(MLFF, Mult Lane Free Flow) 시스템 도입 등 양국 간교통분야 인프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박 장관은 베트남 응우옌 두이 람(Nguyen Duy Lam) 교통부 차관과 만나 베트남 북남고속철 건설사업(하노이~호찌민) 등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국내 건설·교통기업 관계자들과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11월 21일, 오전)하고, 현지에서의 성과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한국의 건설기술로 지은 쿠알라룸푸르를 상징하는 초고층건물로 높이 451.9m(88층), 삼성물산 및 극동건설이 2번 타워 건설 참여, 1998년 완공

최근 삼성물산이 시공한 세계 2위의 마천루인 메르데카 118 빌딩*을 방문(11월 22일, 오후)하여 우리 건설 기술의 우수성과도 확인할 예정이다.

* UAE 부르즈 할리파에 이은 세계 2위(118층, 679m), 현재 시공 완료되어 준공승인 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 개최사에서 “지난 10월 라오스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에 따라 양측의 교통분야 협력관계가 한층 더 도약할 것” 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모빌리티 정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아세안 회원국이 더욱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CSP)



골프는 셋업 (Set-up)이 중요하다

글: 손상현(‘자카르타의 아침’블로거)

골프 라운드 중에 갑자기 발생하는 뒤땅과 토핑, 생크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골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뒤땅과 토핑, 생크는 프로와 아마추어 골퍼를 막론하고 모든 골퍼에게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타이거 우즈나 로리 맥길로이 같은 최정상의 선수도 뒤땅과 토핑, 생크가 나서 아마추어 골퍼의 미소를 자아내는 어처구니없는 샷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크는 뒤땅과 토핑에 비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생크 때문에 한동안 골프를 멀리하기도 하는데요. 골프채를 아주 내려 놓고 더 이상 골프를 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투어 프로들도 생크는 골퍼의 영혼을 파괴하는 질병이며, 전문성이 강해서 지켜보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생크 때문에 약 2~3년 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골프채를 모두 부러뜨리고 싶었던’ 아픈 기억입니다.

문제는 라운드 중에 이러한 샷 실수가 나왔을 때 정확한 원인을 즉시 확인하고 교정을 해서 다시 정상적인 샷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 갑자기 뒤땅-hit behind the ball

뒤땅-hit behind the ball이 나는 이유는 ‘긴장’을 하기 때문이며, 몸의 회전이 부드럽지 못하고 헤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긴장의 원인은 샷을 하는 방향의 앞쪽에 헤저드 등의 페널티 구역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 공을 조금 더 멀리 보내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좋은 샷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아마추어 골퍼는 주위에 갤러리가 많아도 부담이 돼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어드레스 스탠스가 너무 넓은 경우, 셋업 시 공의 위치가 평소와 다른 경우, 슬로프 라이에 의한 경우, 공이 발보다 높거나 낮은 라이에서 체중이동을 하지 못한 경우, 공과 몸이 너무 가까이에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유소연 프로는 “중요한 샷일수록 긴장을 풀고, 몸에 힘을 더 빼야 합니다.” 라고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만 아마추어 골퍼들에게는 긴장을 푸는 일도 몸에 힘을 빼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 뒤땅 해결 방법

평소보다 더 천천히 부드러운 스윙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스탠스가 넓은 편이라면 적당한 간격으로 좁히고, 클럽에 따라 공의 위치를 항상 일정하게 두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공이 발보다 위쪽에 있다면 클럽을 짧게 잡고 공의 위치는 가운데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합니다. 발보다 아래에 공이 있다면 클럽을 길게 잡고 상체의 움직임만으로 스윙을 하며 공은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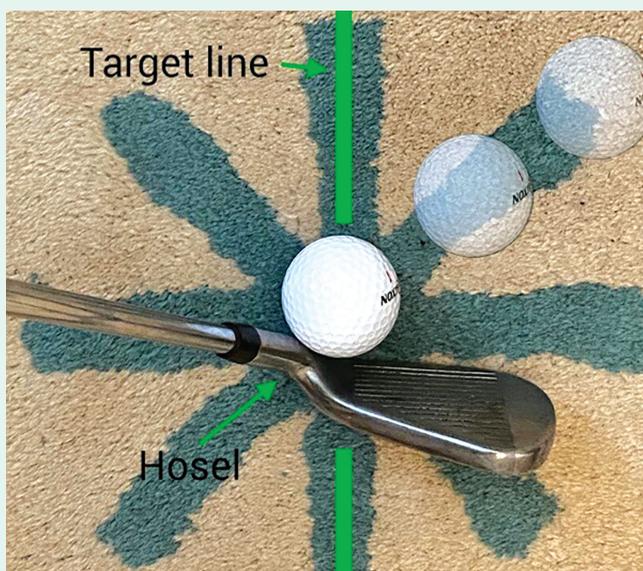
에 위치해야 합니다. 어드레스 시 공이 가운데보다 앞쪽(타깃 방향)에 있다면 스윙을 할 때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발에서 왼발로 체중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갑자기 토폭_topping

토폭_topping이 나는 이유는 ‘하체 동작, 특히 오른쪽 하반신 동작이 빠를 때’ 많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공을 띄우려고 할 때, 공이 너무 멀리 있는 경우, 손과 팔의 긴장, 헤드 업, 나쁜 자세(지나치게 숙이거나 서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 공을 강하게 치려고 손과 팔에 힘을 주거나 공을 띄우려고 하는 동작에서 토폭이 많이 발생합니다. 공을 띄워서 멀리 보내려면 핸드퍼스트 자세로 다운 블로 샷을 해야 하는데요. 클럽 헤드에 공이 먼저 맞고 공 앞쪽에 디봇 자국이 생겨야 합니다.

▶ 토폭 해결 방법



유소연 프로는 ‘몸과 팔의 회전이 최 대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을 띄우거나 멀리 보내려는 시도는 무리한 스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헤드업은 임팩트 이후 날아가는 공을 보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팩트 이후까지 공이 놓였던 위치에 시선을 두고 오른쪽 어깨가 턱을 미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머리를 들면서 회전을 해야 합니다.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왼쪽 손등이 하늘을 보지 않도록 하세요. 왼쪽 손등이 하늘을 보면 왼쪽 어깨도 함께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한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하다 보면 상체의 엷다운이 심해져서 반작용으로 헤드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갑자기 생크_shank

생크_shank는 클럽 페이스가 아닌 호젤에 공이 맞는 경우인데요.

- 셋업, 임팩트 시 체중이 발끝에 쏠리는 경우
- 셋업 시 볼에 너무 가까이 서 있는 경우
- 백스윙, 다운스윙 시 팔이 몸에서 멀어지는 경우
- 공이나 타깃 방향으로 머리를 기울이는 경우

생크_shank는 골퍼라면 누구나 최소 한 번 이상씩 겪게 되는 성장을 위한 진통 과정입니다. 골퍼마다 생크가 나는 원인이 조금씩 다른데요. 신기한 것은 생크가 나기 직전까지 대부분 컨디션이 좋아서 최고의 샷감과 스코어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과도한 자신감이 스윙에 변화를 가져와서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요? 골프에서 흔히 덤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이 잘 맞으면 어떻게 스윙을 해도 잘 맞고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하고 빠르게 스윙을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런 경우 생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 생크 해결 방법

유소연 프로는 ‘셋업 또는 공을 치는 순간 발끝에 체중이 쏠리는 경우에 생크가 발생하며, 체중이 발의 중앙에 있으면 절대로 생크가 나지 않는다’ 라고 하네요. 해결방안으로는 ‘셋업을 할 때 발 뒤쪽-앞쪽-중앙 순으로 무게 중심을 두는 어드레스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된다’ 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벽에 힘을 붙이고 백스윙 시 오른쪽, 피니시에서는 왼쪽 힘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하체를 단단히 고정하고 다운 스윙에서 임팩트 이후까지 오른쪽 발뒤꿈치를 최대한 늦게 떼려는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지금은 생크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언제 다시 생크가 날지 몰라서 항상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생크를 만들기 때문에 해결방안도 골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셋업(머리 위치, 그립, 몸과 볼과의 관계, 축이 되는 몸통의 허리 각도, 스윙을 받치는 단단한 하체, 무게중심 위치 등)부터 먼저 점검하고 천천히 스윙을 하면서 올바르게 안정된 폼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신감이 생기면 생크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잭 니클라우스는 ‘어드레스가 골프에서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하면서 어드레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통계자료에 의하면 잘못된 스윙의 90%는 잘못된 셋업(어드레스)에 있다고 합니다.

한편, 생크는 기술적 문제이기보다 심리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샷을 하면 좋다는 것이 전문가 또는 투어 프로들의 한결같은 조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인도네시아 외교부 리자 전 북한대사관 참사관 특별 강연 및 8.15 독트린 정책 지지」

제21기 민주평통 동남아 남부협의회(이세호 회장)에서는 지난 10월 15일 Wisma Korindo 빌딩 14층 홍보관에서 강원준 총영사(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와 리자 참사관, 그리고 한인회, 유관기관 단체장, JIKS 한국학교 이선아 교장과 교감,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반둥, UPI) 디딘 학과장과 학생들 및 민주평통 위원들, 참가자 41명과 온라인 참가자 40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4년 특별 통일강연회 - 통일 강연 Korea Peninsula Peace Forum」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임수지 재무간사의 사회로 국민의례, 이세호 협회장 개회사, 강원준 총영사 축사, 김종현 한인회 수석부회장 축사, 안선근 자문위원의 특별강연, 리자 Bapak Riza H. Wardhana 참사관의 통일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세호 협회회장은 축사를 통해 “평화적 대화와 인도적 지원, 그리고 경제적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자카르타를 포함한 해외 동포들이 이러한 평화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며 “공공 외교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각자의 자리에서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통일 강연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대학생들의 참여가 있었으며, 8.15 독트린

지지를 밝히는 영상들을 배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에 강원준 총영사는 리자 참사관의 특별한 강연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공유가 될지 응원하는 인사말을 인도네시아어로 축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며 특별 통일 강연 시작을 알렸다. 행사의 주요 강연자인 리자 참사관은 인도네시아 외교부, 북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보유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그는 북한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독특한 시각을 제공했다. 강연에서 리자 참사관은 과거 북한 평양에서 거주했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과 활동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사회 구조, 그리고 평양에서 직접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북한의 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어진 특별 강연에서는 안선근 박사(자문 위원)가 「인니 대선 이후 프라보워 당선인 정치, 정책 전략 보고서」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강연에 참석한 귀빈 및 위원들은 북한 사회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을 들을 수 있었으며, 남북 간 화합과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7시간 15분의 여정

강인수(한국문협 인니지부 재무국장)

어두운 밤. 수카르노 공항 활주로의 조명이 차분하게 빛난다. 자카르타발 인천행 비행기는 10시 30분을 넘어가고 있다. 9시10분경 탑승을 시작했으나 이륙하는 다른 비행기의 순서에 밀려 늦어진 듯하다. 나는 자리에 앉아 일렬로 선 비행기들이 이륙 준비 중인 활주로를 바라보는 중이다. 마음속 불안을 잠재우려 하품을 반복한다. 비행기 두려움을 가진 나에게 비행기는 언제나 커다란 장애물이다. 이륙 순간을 견뎌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손은 식은땀에 젖는다. 승객들이 자리에 앉고, 승무원들이 이륙 준비를 시작하자, 주변은 잠잠해졌다. 모두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다.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굉음과 함께 기체가 땅을 박차고 하늘로 솟아오른다. 도시의 불빛은 빠르게 멀어진다. 그와 함께 마음속 불안은 더 깊어지는 중이다. 창밖으로 사라지는 자카르타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을 감아보지만 두려움은 쉽게 가지지 않는다. 여권과 탑승권을 만지작거리며 탑승권 끝자리에 적힌 숫자, 마일리지 포인트를 살펴본다. 꽤 많은 포인트가 쌓여 있다. 남편의 발령으로 인해 해외 생활을 시작한 이후, 비행기를 자주 타야 했던 나에게 쌓인 마일리지는 내가 견뎌온 비행의 흔적이다. 비행을 두려워하면서도 포인트가 어느새 꽤 많아졌다는 사실에 나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온다. 남들은 비행기 타려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설렐지 모르지만 나는 그저 매번 불안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고국으로의 가는 여정을 견딘다.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대자연의 밤 풍경을 상상해 보려 하지만, 오로지 비행기의 흔들림만이 신경 쓰인다. 앞좌석에 걸린 화면이 남은 비행시간을 보여준다. 아직 5시간 4분, 그리고 목적지까지 5,012킬로미터가 남아 있다. 나는 식사를 서둘러 끝내고, 승무원들이 음식 치워주기를 기다린다. 어느덧 비행기는 칼리만탄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다. 기체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니 옆자리에 앉은 중국계 여성이 갑자기 성호를 그으며 기도한다. 그녀를 따라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모은다. 그녀도 나처럼 난기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일까?

흔히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한다. 우리는 어디로 여행을 가든 길을 거쳐 가야 한다. 울퉁불퉁한 길, 매끄러운 도로, 파도치는 바닷길, 구름 낀 하늘길, 이 모든 길은 여행할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 7시간 15분 오늘의 여정에도 모두의 인생이 담겨있다. 몸을 싣고 노선을 따라가는 내내 중착역이 오기까지 몇 번의 난기류가 울까 염려도 해 본다. 인생의 고비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듯 밤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속 어떤 승객들은 깊게 잠들어 살짝 코를 골기도 한다. 그 소리에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는다. 마치 인생의 평온한 길을 지



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금의 나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걸까? 새벽 3시 30분. 비행기 안의 시계는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다. 내 인생의 시계도 그와 같이 가고 있을까?

타국에서의 삶은 항상 낯설고 무거웠다. 마치 두꺼운 외투를 입은 것처럼 답답함이 숨을 짓눌렀고, 타인과의 소통은 단단한 바위에 대고 외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일 년 내내 답기만 한 날씨도 견디기 힘들었다. 한국의 사계절에 익숙했던 몸은 현지의 열기에 자주 지쳤고, 비행기가 요동을 치듯 사건이 터질 때마다 모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름의 위안을 찾을 때가 있었다.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며 야자수들이 내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차분해졌다. “괜찮아, 이것도 지나가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위로를 건넸다. 7시간 비행과 같은 생의 여정은 적도를 지나며 흔들렸고 별판을 지날 때 조용했다. 비행기의 경로처럼 생의 궤적 또한 변화무쌍한 풍경 속에서 스스로 속도를 조율하며 나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대만 상공을 지나 제주도를 지나기 전 미세한 흔들림이 잠들었던 공포를 다시 깨운다. 방심은 언제나 허를 찌른다. 내 인생도 지금의 비행처럼 방심한 적은 없었나?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 될 대로 되라고 내려놓는 순간, 어김없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일들이 나타난다. 그것이 인생이다. 밤새 달려온 비행기는 곧 인천 앞바다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 창밖으로 바라본 새벽의 하늘은 여전히 어둡지만, 저 멀리서 희미한 빛이 다가오는 것 같다.

7시간 15분의 긴 비행이 끝나갈 무렵, 비행기는 서서히 착륙을 준비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마치 구름을 밟듯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기장이 비행기를 능숙하게 착륙시켰다. 비행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성호를 그으며 옆자리에 앉았던 중국계 여성에게 여행 목적지를 물었다. 그녀는 다시 일본으로 향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여행이 무사히 잘 끝나기를 바란다며, 미소를 지었다.

비행기 공포를 가진 나에게 7시간 15분은 마치 멈춰버린 시간처럼 길고도 고단했다. 수화물 찾은 곳에 다다르자마자, 긴 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머리칼을 손가락으로 정리했다. 이제 이 거대한 공항의 혼잡함을 벗어나야 할 시간이다. 생각이 많았던 긴 밤을 뒤로하고, 마침내 한숨 돌릴 수 있는 공항버스에 몸을 기대며, 그리운 가족들과의 재회를 상상해 본다. 버스 창문 커튼을 슬며시 닫고,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몇 달 후 또다시 수카르노 공항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오겠지만, 그때의 긴장감은 오늘만큼은 잊기로 했다. 지금, 이 순간, 버스 안에서 찾아온 편안함을 최대한 만끽하려 한다. 언젠가 또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때, 지금을 기억하며 그 평온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라며, 무거운 트렁크를 감싸는 햇살 아래 나는 서 있다.



현지인이 운영하는 해외 한식당, 어떻게 볼 것인가?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변화의 시대, 한식당의 과제와 기회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최근 한국 언론들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에서 중국계 현지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의 문제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집중 보도했다. KBS는 11월 23일에 프랑스와 독일 등 해외에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한식당이 늘고 있다고 보도하고, 그 문제점으로 정체불명의 한식과 한식의 이미지 왜곡, 공격적인 소셜미디어(SNS) 마케팅으로 인해 정통 한식당보다 상위에서 검색되는 점, 거대 중국자본이 한식당 사업에 뛰어들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중소규모 한식당이 타격을 받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해법으로 일본이나 태국처럼 자국 식당 인증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상황은 어떨까?

인도네시아에서도 자카르타, 족자카르타, 수라바야 등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서부자바의 가룻 같은 중소도시에서도 한국인이 아닌 현지인이 하는 한식당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비교적 큰 자본으로 접근하는 현지인은 한식당 사업에서 중요한 행위자가 되고 있다.

자카르타 한식당은 지난 수년 간 양적으로 질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거센 지역이고, 자카르타는 그 중심에 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카르타 전역의 한식당 수는 150여 개, 이 중 수디르만 상업 중심지구(SCBD) 주변에 50여 개가 분포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한식당은 통계를 잡기 어려울 만큼 많으며, 형태와 규모도 다양하다.

자카르타 SCBD 지역에 산재한 크고작은 한식당들은 음식의 맛과 질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규모가 큰 식당은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홀과 다양한 크기의 프라이빗 룸을 구비하고 있다. SCBD에 인접한 세노빠띠 지역에는 일식당과 이태리 식당 등 외국계 식당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일부 외국계 식당이 대형 고급 한식당으로 대체되고 있다. 부유층이 밀집한 자카르타 북부의 뽀따이 인다 까백(PIK) 지역도 한국인만이 아니라 현지인이 운영하는 새로운 컨셉의 한식당이 집중된 지역 중 하나이다. 고급 전통 한식당부터 퓨전 스타일의 패스트푸드형 한식당, 분식 메뉴를 특화한 곳, 술집까지 다양한 형태의 한식당이 등장하고 있다.

자카르타의 한식당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예컨대, 롯데몰 지하에 조성된 ‘골목길상회’는 70~80년대 한국 골목 문화를 재현해 큰 인기를 끌며, 고객들에게 단순한 외식 이상의 감동을 준다. 인도네시아에서 한식에 대한 관심을 촉발한 요인 중 하나는 K-드라마와 K-팝으로 대표되는 한류 콘텐츠의 인기였다.



한편 자카르타에서 이동하다가 보면 한국음식을 파는 한식당인데 의미를 알 수 없는 이름의 상호와 한국어 철자법이 틀린 광고판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사용하지 않는 인테리어 등 뭔가 낯선 느낌의 한식당을 종종 마주친다. 이들 식당의 차림표에는 서울의 명동 거리에서 본 듯한 메뉴가 적혀 있지만 실제로 식탁에 차려진 음식 중에는 한식이라 부르기 어려운 음식들도 있다.

현지인이 운영하는 한식당: 기회와 도전

인도네시아에는 과거부터 현지인이 투자해서 만든 한식당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외식업을 하는 현지 사업가들이 한식당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자카르타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외식업계에서 화교 자본의 존재는 독보적이다. 이들이 자본력과 현지화 능력을 바탕으로 한식당 사업에 뛰어들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는 화교는 대규모 자본과 현지 식당 운영 노하우를 더해 한식당을 대형화와 기업화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대형 프랜차이즈로 발전시키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두번째는 현지 소비자의 입맛에 맞춘 창의적인 퓨전 메뉴를 통해 고객층을 확장하고 있다. 세번째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감각적인 브랜딩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간다.

그렇다면 현지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한식당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한식의 지나친 현지화는 정통 한식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이미지를 왜곡할 수 있다. 또 음식 품질과 서비스 표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자본력과 운영 능력을 갖춘 화교 한식당은 한국인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틱톡, 인스타, 유튜브 등을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핫플’ 이미지를 만들어 현지인 고객을 끌어당기는 반면 한국인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마케팅에 약한 모습이다.

한식당 사업에 현지인 참여를 긍정적으로 이끌려면

현지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그동안 자카르타에서 생겨났다가 없어진 많은 한식당을 보면 시장(소비자)의 변별 능력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맛없고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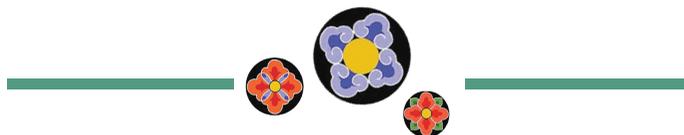
가 나쁜 한식당은 스스로 거른다. 다만 한식당이라는 장르가 결정된 만큼 한식의 정체성과 품질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과 한국식품이 한식당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고 협력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한국인 조리사와 매니저가 참여해 정통성을 강화하고, 한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인 운영자들과 협력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카르타 한식당 운영자에 따르면, 실제로 현지인 자본과 한국인 운영자가 협력하는 한식당들도 여럿이다.

한국 정부와 민간 단체가 협력해 정통 한식당과 퓨전 한식당을 구분하고, 정체성을 유지하는 곳에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일본과 태국 그리고 이탈리아는 이미 자국 음식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했다. 각국은 자국산 식품을 사용해 자국의 요리법으로 음식을 만드는 식당을 심사해서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한식 역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제를 도입해서, 소비자들이 일정 기준의 한식을 제공하는 식당과 그렇지 않은 식당을 구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와 민간 단체가 협력해 해외 한식당 지원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통 한식 레시피와 조리법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한식 셰프 양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한식당의 가장 든든한 소비자이자 지지자로서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자카르타에서 현지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은 한식의 글로벌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레스토랑 사업을 하는 화교들이 현지 비즈니스 모델에 한식을 엮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실제로 자카르타에 현지인에게 인기 있는 일부 프랜차이즈 일식당은 전통적인 일식당의 모습이 아니고 해외에서 변형된 일식당의 모습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보는 베트남 음식점은 베트남 전쟁 때 미국으로 이주한 베트남인들이 미국 레스토랑 컨셉을 결합시켜서 만든 사업모델이다. 한식당은 단순히 외식 공간이 아닌,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한식당은 하나의 식당으로서 현지인들이 맛있는 한식을 먹고 즐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좋은 사람들과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함께 맛있는 한식을 먹는 쾌적한 공간으로서 사업성을 갖춘 한식당 모델이 한국인과 현지인의 협력 속에서 나오길 기대해 본다. <끝>





Hyaang, the yoga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가버디 michelle입니다.

이번시간, 요가수련의 기본 동작 3가지 배울께요.
유연성뿐만 아니라 속근육까지 채워주는 요가수련으로 더 젊은 몸이 될 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러고 있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매일 5분만 따라하면요, 딱 5분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표동작 ; **차투랑가, 전사자세 1, 2**
“오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Phase 1

먼저 **Ocean Wave** 동작으로 몸을 가볍게 풀어줍니다



1. Adho Mukha Svanasana
(다운독)



2. Santolanasana(플랭크)

- ◆[다운독→플랭크]x10회
- ◆다운독; 손바닥, 발바닥 밀착, 코어힘, 어깨랑 귀랑 멀게
- ◆플랭크; 팔 바닥면과 직각, 코어 반듯하게, 어깨 움츠러 들지 않아요

Phase 2

[3다리자세→전사1자세]



1. Adho Muka Svanasana
(3다리 자세)



2. 오른발을 손과 손사이에 놓고

- ◆3다리자세: 왼발을 두발사이의 중앙으로 옮긴후 오른발을 높게 듭니다. 무릎 최대한 펴고 엄지발가락 끝까지 힘.
- ◆오른발을 손과 손사이에 놓고, 왼발은 45도로 뒹습니다



3. Virabhadrasana 1(전사1 자세)

[전사1자세]

- ◆양팔을 하늘 위로 뻗고, 상체를 최대한 곧게 크게 세웁니다
- ◆골반 비뚤어지지않게, 오른다리와 같은 방향으로
- ◆오른 무릎은 직각이 되게 구부리고 유지, 시선은 멀리 하늘

Phase 3



1. Down Dog(다운독)



2. Adho Muka Svanasana(3다리 자세)

[다운독→3다리자세]

- ◆다운독: 손, 발 매트에 밀착 코어에 힘 어깨랑 귀랑 멀게
- ◆3다리 자세: 왼발 두발사이의 중앙으로 옮기고 오른다리 하늘 위로 뻗기, 무릎펴고 엄지발가락까지 힘



3. Virabhadrasana 2(전사2 자세)

[전사2 자세]

- ★왼발을 90도로 닫고 골반을 열어줍니다★
- ◆손을 앞뒤로 뻗고 왼무릎 직각으로 구부립니다
- ◆시선은 오른손 끝

Phase 4



1. Adho Mukha Svanasana
(다운독)



2. Santolanasana(플랭크)

[다운독→플랭크]

- ◆다운독: 손바닥, 발바닥 밀착, 코어힘, 어깨랑 귀랑 멀게
- ◆플랭크: 팔 바닥면과 직각, 코어 반듯하게, 어깨 움츠러들지 않아요



3. 무릎 내리기



4. Ashitanga Namaskara

[무릎내리기→아쉬탕가 나마스카라]

- ◆플랭크자세에서 무릎을 그대로 바닥에 놓습니다
- ◆가슴과 턱을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하늘로 솟게 됩니다



4. Urdva Mukha Svanasana(업독)



5. Adho Mukha Svanasana (다운독)

[업독→다운독]

- ◆업독; 코브라자세에서 무릎을 떼고 시선 하늘. 어깨가 움츠러들지 않게 합니다
- ◆다운 독; 그대로 엉덩이를 들며 상체를 앞으로 뺏습니다. 손바닥으로 매트 밀착하며 앞으로 밟니다. 코어에 힘, 어깨랑 귀랑 멀게

마무리



1. 뒷꿈치 들고 도움닫기 자세2



2. Urdva Uttanasana

- ◆뒷꿈치 들고 손과 손사이 바라보며
- ◆앞으로 점프
- ◆다리 펴고 등뺏니다



3. Uttanasana (몸접기자세)

[몸앞으로 구부러지기]

-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 ◆손바닥을 발목뒤에 대며 상,하체 밀착

와...오늘도 해내셨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40대 이후 우리 몸은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점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근육운동, 꼭 하셔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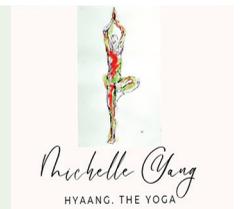
아무리 바쁜 사장님도 5분은 시간 있죠? 하루 5분 요가수련은 노후자금

이다 생각하고 근육저축, 꼬옥 하십시오!

여름날같이 싱그럽고 더 그윽한 향기를 내뿜을 향기님들을 응원합니다!
다! 나마스떼..

모든 시퀀스는< Hyang the yoga>의 창작물이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Yoga instructor,
Michelle Yoga class <Hyaang, the Yoga>
운영그룹 및 개인수련 문의는 카톡 'tidapapa'로 문의주세요





서상영 (미르한의원 원장, Jakarta)

어린 시절 아버지는 보르네오섬에서 목재업에 종사하셨다. 몇 년간 가족이 떨어져 살다가 중학교 때부터 우리 가족은 자카르타에 정착해 생활하게 되었다. 호주에서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몇몇 나라를 돌아다니며 실무경험을 쌓던 나는 인도네시아에 돌아와 백수 생활을 한 지 3개월을 막 넘어섰다.

뒤늦게 한의사가 된 아버지는 자카르타에서 조그만 한의원을 운영하셨다.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리고 소설가인 어머니를 보필하며 소소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당시 작품 활동에 침체를 겪던 어머니는 글쓰기보다 잔소리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셨는데, 잔소리로도 글이 풀리지 않을 때면 목적지 없는 외출을 하셨다. 그런 어머니와의 ‘동행’이 외동딸인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였다.

“헤미야, 엄마가 몇 번을 얘기해야 알겠니? 여자는 말이야, 자고로 청순하고 짹짹하게 보여야 해. 이렇게 덤벙대서야 시집이나 가겠니?”

“엄마는 또 시집 타령이야? 난 시집갈 생각 일도 없거든.”

정해진 시간마다 들리는 아잔 같은 어머니의 잔소리를 피해 내가 향한 곳은 어느새 나의 쉼터가

된 ‘자카르타 경로당’ 이었다.

자카르타는 동서남북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교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남쪽과 북쪽 지역이다. 자카르타 중심부에 위치한 자카르타 경로당은 개소한 지 올해로 2년째를 맞이했다. 한인회와 대사관, 종교 단체와 여러 기업이 힘을 합쳐 설립한 자카르타 경로당은 하루 방문객이 200명이 훌쩍 넘을 정도로 변화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박 회장님의 열정이 한층 더 교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이름이 경로당이지 애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성인 할 것 없이 모여드는 ‘핫플’ 이나 마찬가지였다.

“초창기 한 한인 사업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시작되었지. 이역만리 떨어진 타국에서 적정한 노인들이 모여 함께 어울리고 나눔을 갖는 장소. 이것이 그 양반이 이 자카르타 경로당을 설립한 계기란 말이야. 거기, 젊은 양반, 내 얘기 듣고 있지?”

“그럼요!”

내가 맡은 업무는 자카르타 경로당에 들어오는 후원 물품 관리와 매번 열리는 행사 일정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경로당에 오는 어르신들의 말 상

대가 되어드리는 건 덤이었다.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경로당이 생기고 난 뒤, 어린아이들도 모여서 쉴 수 있는 쉼터가 생겼고, 어르신들은 손뼉치고 웃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 문을 연 이래로 하루도 빠짐없이 많은 교민이 들르는 장소가 되었다. 이렇다 보니 행사 진행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다.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인기가 많은 ‘시니어 노래 교실’이 열리는 날이다. 트로트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는데, 반짝이 모자를 쓰신 일명 김 박사라는 분이 진행을 맡았다. 찌렁찌렁한 목소리와 경쾌한 율동에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호응은 트로트 콘서트 현장 못지않다. 그 덕에 오늘도 찌카랑, 땅그랑, 플라빠가딩 등지에서 온 어르신들로 자카르타 경로당의 강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주차장이 또 만석이네.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온 손주들이 아래층에서 간식을 먹느라 좀 소란스럽지?”

시끌벅적한 시장통 같은 분위기에 아직 적응이 안 되어 어리숙한 나는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쿵쾅 쿵쾅라 짜라자자!

음악이 흘러나오는 동시에 어르신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어깨춤을 들썩이신다. 흥에 겨워 분위기는 정오의 적도 땀별처럼 뜨겁게 달궈진다. 냉방을 최대치로 돌리는 에어컨이 무색할 정도로 강당은 후끈후끈하다. 경로당에 들어설 때만 해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쭈신다던 어르신들이 노래를 부르며 땀이 흠뻑 젖도록 춤을 추신다.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자리에 앉는 분들이 하나둘 생긴다. 앉아서도 박수만은 끊이지 않는다. ‘저렇게 재미있으실까? 인생의 황금기라는 이십대인 나는.....’

때로는 내가 어르신들보다 더 나이 든 기분이 든다. 보통 1주일에 네다섯 번은 공연이나 강연, 행사가 있다. 유치원생들 장기자랑부터 초중고등생

들의 연극과 노래자랑, 성인들이 주관하는 건강 강좌, 요리 교실, 댄스와 노래 교실 등이다.

여러 한인 단체들과 기업, 종교 단체,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식당과 연대를 맺은 덕분이다. 그 ‘덕’에 자카르타 경로당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녹초가 되어 버리지만.

아, 아직 끝나지 않은 나의 마지막 일과가 남아있다. 바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다. 어머니가 정성스레 준비한 식사를 맛있게 즐기는 것도 빠지지 않는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래요, 엄마. 실컷 얘기하세요. 이 효녀가 다 들어 드릴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와 차 한잔하며 음악을 듣거나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다.

베란다에 촘촘히 놓인 작은 화분 속의 식물들과 편안함을 주는 은은한 조명들. 그리고 아버지가 손수 준비하시는 구수한 전통차. 하루의 피로를 풀기 충분한 조건들이다. 지금은 알지 못해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차고 넘치는 작은 행복일지도. 한의사인 아버지는 종종 빵을 굽는다. 아버지는 하루가 조금 고됐거나 정성을 쏟은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속상하신 날 반죽을 치대신다. 아버지는 종종 빵 만드는 비유를 통해 당신의 속내를 비친다.

“포슬포슬한 빵을 만들려면 적당한 배합과 숙성, 적당한 발효와 온도가 중요해. 우리네 인생도 그렇단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배려, 적당한 관심이 필요하지.”

얼핏 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들이 적당히 어우러지는 시간이다. 향수처럼 아버지의 손에 밴 한약재 냄새와 잘 우려난 차 향. 몽글 몽글 부푼 빵 내음.



자카르타 경로당에 몸담은 지 3개월이 되어간다. 저녁 7시면 문을 닫는 시간이라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물품들을 체크하고 정리 정돈을 마칠 무렵, 자카르타 북쪽의 끌라빠가딩에 거주하시는 김 할머니는 문을 나서다 발걸음을 멈추셨다. 김 할머니는 입담이 좋아서 인기가 많다. 주머니 속에 사탕을 챙겨 다니시며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사탕 할머니’란 별명으로 불린다. 주춤하시던 김 할머니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저기..... 헤미씨, 오늘 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될까?”

활발하고 소탈한 모습을 보면, 아무 근심 걱정도 없어 보이시는 푸근한 이미지의 할머니였기에 나는 걱정부터 앞섰다.

“사탕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려다 멈칫멈칫하던 사탕 할머니는 좀체 입을 열지 않았다.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주춤하던 사탕 할머니가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영감을 떠나 보낸 후 한국 집을 팔고 아들 따라 인도네시아로 왔는데, 말도 안 통해. 친구도 없어. 낯선 곳에서 적응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살수가 있어야지. 설상가상 며느리와 마찰이 나날이 심해져 고성이가 오가서 손주들 보기 창피해. 그 스트레스로 우울증도 앓았고 입이 돌아가는 구안와사도 앓았어. 하루에도 몇 번씩 아파트 창문을 뛰어 내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 그러다 자카르타 경로당 얘기를 들었는데, 선뜻 나가기가 망설여지더군. 몇 번 아들의 권유가 있었지만, 나이 먹으니 용기가 더 안 나더라고. 보다 못한 아들에게 끌려오다시피 해서 처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지. 그 후 나의 인도네시아 생활은 180도 달라졌어. 잃었던 웃음도 찾았고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졌지.”

여기까지 말한 사탕 할머니는 마음 편한 미소를 지었다.

“나에게는 하루하루가 천국이 따로 없어. 어찌나 고맙고 감사하던지. 매일매일 감사 기도하는 버릇도 생겼어. 그런데 한가지, 며느리와의 관계가 아직도 서먹서먹해. 오늘도 나오는데 자가용 쓰는 문제로 티격태격하고 나왔더니 영 마음이 편치 않아서 집에 들어가기 좀 그래. 그래서 물어본 거야. 혹시 오늘 하룻밤 여기서 자고 가면 어떨까 싶어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사탕 할머니에게 차분한 어조로 말씀드렸다.

“할머니, 오늘은 바로 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늦게 귀가하시면 식구들이 많이 걱정할 거예요. 어서 저랑 같이 나가요. 자가용은 걱정 마시고요.”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인사 하려는데 사탕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나에게 사탕을 두 개 건네셨다. 무엇에 이끌리듯 나도 모르게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부여잡고 속삭였다.

“오늘은 이 사탕 며느님 드리세요.”



나는 방긋 웃어 보이고 작별 인사를 건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둑해진 하늘처럼 마음 한편이 먹먹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홀가분했다. 보색처럼 반대되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정리가 안 되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중얼거리는 버릇이 있는 나는 독백을 시작했다. 그러다 알게 되었다. 사실 할머니의 얘기를 듣는 내내, 내 얘기를 듣는 기분이었다.

겉으로는 명랑해 보이지만 뒤로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나는, 뚜벅뚜벅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나는, 창살 없는 감옥이 나를 옥죄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는지도 모른다. 자동차 창문을 내렸다. 비릿한 저녁 공기가 밀려든다. 평소라면 진저리를 쳤을 냄새를 맡자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맡기 싫어하던 비린내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인생의 냄새였던 것일까.

그날 이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는 버릇이 생겼다.

“딸애가 인도네시아 거주하는 사위를 만나 결혼한 지 5년 만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 왔다가, 맞벌이 부부라 내가 손주를 돌봐 주면 어떻겠냐고, 통 사정하길래 그 길로 정착했는데, 지금은 외출하는 것도 눈치 보여.”

찌까랑에서 온 한 씨 할머니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쫓쫓. 나는 휴가 때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니까. 돌봄이 색시가 돌아온다고 약속한 날이 며칠이라도 늦어지면, 손주들 돌보는 게 너무 버거워. 그나마 돌아오면 다행인데.....”

이번에는 할아버지들 곁에서 핸드폰 하는 척하며 자리를 잡았다.

“지금 이 정도로 걸어 다니는 것도 기적이지. 중풍이 올지 꿈에도 몰랐으니 정말 많이 후회했어. 마누라가 그렇게 술 담배 적당히 해라고 했는데 침대에만 누워 있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동안 건강에 소홀한 것부터 해서.

한국에 가서 치료받아야 빨리 나으려나? 여기도

한국 병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는 한 친구가 찾아와 나에게 이렇게 묻더군. 만약 나에게 방안 한가득 쌓인 금덩이와 걸을 수 있는 신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겠냐고. 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걷고 싶다고 했지. 내 발로 가고 싶은 곳 가고, 밖이든 안이든 돌아다니고 싶다고. 지금 제2의 인생을 사는 느낌이랄까. 허허허.”

부유하기로 소문난 이 씨 할아버지가 침을 튀기며 말씀하셨다.

“누가 건강이 소중한 걸 모르나. 술 담배가 해로운 것도 알지만 마음이 괴로우니 또 찾게 되는 거지. 몇 년 전 그 많던 돈과 친구들. 다 부질없더라고. 내가 잘 나갈 때 귀찮도록 찾아오던 사람들이 사업이 기울었다는 얘기를 듣더니 발걸음이 뚝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더군. 우리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건설한 건축물과 교량만 해도 몇 개인데..... 정부가 결정하는 일을 난들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저런 방법 써봤지만 돈만 날리고 시간만 허비하니 속이 안 썩을 수가 있나. 화병에 걸려서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도 못 잘 지경인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노래 교실 댄스 교실에서 한껏 흔들고 나면, 그날은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잔단 말이지.”

어르신들의 얘기를 한 달 남짓 듣다 보니 깨달았다.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다는 걸. 그리고 가슴 아래서 몽클몽클 올라오는 이 느낌. 머릿속에 “무엇이든 보탬이 되고 싶다.” 는 울림이 멈추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목록을 적고 실천해 나갔다.

첫째.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편한 곳이 있는 어르신들은 그때그때 바로 통보하도록 안내하기.

둘째.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동네의원들과 한의원, 치과, 약국과 더욱 밀접한 교류를 형성해 나가기.

셋째. 교통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비슷한 동네에 사시는 분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일정을 확인하기. 그 결과, 한인회에서 차량 2대를 추가 지원받는 쾌거 달성. 만세!

넷째.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용법 알려 드리기.

그 뒤, 서너 달의 시간이 흘렀다. 이제 자카르타 경로당은 단순한 모임의 장소가 아닌 ‘사랑과 소망과 희망’을 나누는 장소가 되었다. 신기한 것은 또 있었다.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치료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도왔더니 내 마음도 치료가 되었다는 점이다. 자카르타 경로당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나는 거울을 보았다. 모두 나의 이야기였고 나의 모습이었다. 어쩌면 나도 그들의 거울이었고 나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였으리라.

며칠 전 나는 부모님에게 호주로 돌아간다고 선언했다. 열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취업의 문은 결국 나에게도 열렸다. 이력서를 보냈던 호주의 한 호텔에서 취업 제안을 받았다. 이제 밖으로 나갈 용기가 생겼다. 사실, 자카르타로 오기 전에 면접을 보자는 제안에 덜컥 겁이 났다. 왜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을까. 막연히 부모님이 계신 자카르타로 돌아오면 숨이라도 쉬어질 것 같아서 무작정 도망쳤다. 아직 어른이 되기 싫었던 몸만 큰 어른의 피터팬 증후군을 앓았는지도 모른다. 한 차례 열병이 지나간다.

“아빠, 자카르타 경로당에 몸담고 나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나 다시 한번 도전해 볼래.”

“그래, 우리 딸. 예전에도 지금도 엄마 아빠는 우리 헤미를 응원한다. 매일 밤 너를 위해 엄마와 기도를 드린다. 아빠는 정말 흐뭇하구나. 예쁜 우리 딸, 한번 안아보자.”

한약재와 빵 냄새가 섞인 아버지의 품은 따뜻했다. 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평평 울었다.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처럼.

호주로 떠나던 날. 공항에서 사탕 할머니와 떠님님이 같이 오셨다. 어김없이 사탕 할머니는 나에게 사탕 두 개를 건네셨다. 조기 치매 증세로 물건 잃어버리시는 양씨 할아버지, 자기 손주와 결혼해 달라고 농담하시던 문 씨 할머니. 모두가 잊지 못할 소중한 인연들이다. 내 인생의 조각조각 중 가장 빛나고 소중한 기억들이 숨 쉬는 곳, 자카르타 경로당이 그리울 것이다. 잊지 못할 ‘적도의 사람 사는 냄새’ 들도.

내가 떠나고 반년이 지났다. ‘자카르타 경로당 초고’라는 제목의 메일을 어머니에게 받았다. 작품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카르타를 떠나기 전, 자카르타 경로당에서 겪은 일들을 기록한 일기장과 자료를 어머니에게 넘겼다. 미동도 하지 않고 일기장을 넘기던 어머니는 책을 집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다.

추억에도 빛깔이 있다면, 자카르타 경로당에서 보낸 나의 시간은 구수한 전통 차 빛깔이 아닐까. 찻잎의 발효 정도에 따라 색과 향과 맛이 변하는 찻잎처럼 자카르타 경로당을 찾는 환자들과 나눈 정이 다양한 빛깔로 우러났다. 막 우려낸 찻잎처럼 푸릇하던 나의 이십 대의 이야기가 엄마의 주름진 손에서 책으로 쓰였다.

이제, 적도의 반대편에서 막 시작된 나의 이야기에 따뜻한 찻물을 부을 시간이다. 내 삶의 향기가 어떤 빛깔로 우러날지 기대하면서.





2024 인도네시아 문학 9호 발간

지난 23일(토) 오후 3시, 한인회관 2F에서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동인지 「인도네시아 문학 9호」 출판행사 및 북콘서트가 열렸다.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는 한국문단의 중심인 한국문인협회 8개의 해외지부 가운데 한 곳으로 문인 개인의 창작 의욕과 자기 발전을 도모하고 한인사회의 일원으로서 문학을 통한 문화교류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목적으로 결성된 문인들의 모임이다. 2013년 창간호를 발간했으며, 지난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 작품집을 발간했고 올해로 9호가 된다. 이 자리에서 김준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인도네시아 문인협회는 국지적 한계성으로 인하여 인재 발굴과 협회의 활성화에 많은 제약을 받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중반에 시작하는 문학이다 보니 직업의 변동에 따른 이동이 많고, 입문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창작의 불꽃이 시들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의 변화와 사유의 근처에는 많은 이야기 소재가 우리 주변에 산재합니다. 사물을 관찰하고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듯 글을 써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문인협회 초장기 2013년부터 활동한 최장오, 김현숙 시인 부부와 이명미 아동문학가, 우병기 작가가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내년에는 더욱 알찬 「인도네시아문학 10호」를 약속하며 회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로 북콘서트 행사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제7회 적도문학상》을 공모하여 많은 문학신인들을 발굴할 계획도 밝혔다.



3. 자본·기술집약산업 진출 시기: 제1차 성숙기(2003~2017년)

1) 중화학공업, 유통, 금융, ITC, 방산 등 기술·자본집약산업 투자 증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한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더욱 안정적이고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한다. 2000년 이후 봉제업체가 양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금융, 유통, 철강, 석유화학, 정보통신기술(ICT)과 한류 관련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진출하면서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영사 통계의 보수적인 추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동포는 2009년에 3만 700명으로 2005년의 2만 3,025명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현지 체류자들은 1998년 5월 폭동 이전에 12만여 명이나 체류했지만 이후 2만 명 규모로 줄면서, 한인사회가 인도네시아에서 최대 외국인 공동체가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현지 통화의 가치 하락 덕분에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졌다.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봉제 부문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다시 성황을 이뤘고, 폐업한 한국 봉제업체 출신의 관리자들이 귀국하지 않고 창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정부는 2006년 1,2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며, 지지부진한 5%대의 경제성장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는 외국자본의 유치라는 결론에 다다른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투자 여건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신투자법(Undang-undang tentang Penanaman Modal 2007)을 제정한다.

신투자법은 직접 투자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법 앞에 동등한 대우와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여 직접 투자와 관련한 내외국민의 차별을 철폐하도록 하였으며, 투자자산의 국유화 금지, 과실송금 보장 등 투자 안정

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투자법은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소득세 감면,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감가상각 가속, 토지세 감면 등 투자자에게 실제적인 투자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2007년 신투자법을 공포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금지 분야와 조건부 투자 분야를 정리한 새로운 네거티브 투자 리스트(Presidential Regulation No. 77 of 2007)를 발효시킴으로써 직접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투자 관련 법률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법과 네거티브 투자 리스트로 구성되는 직접 투자 관련한 기본 체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07년 KEB하나은행이 현지 소매은행 인수를 시작으로 우리소다라은행, 신한인도네시아은행, OK뱅크인도네시아, IBK인도네시아은행, KB부코핀은행 등 순차적으로 한국계 은행들이 현지 시장에 진출해 소매금융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로서는 처음으로 한화생명(Hanwha Life Insurance)이 2013년 현지법인을 설립해 영업하고 있다.

한국 증권사도 속속 현지 시장에 진출했다. NH투자증권이 지난 2009년 현지 증권사와의 합작사 형태로 처음 진출한 이후 키움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가 진출해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2023년 현재 7개 은행, 9개 증권사 등 28개 한국 금융사가 진출했다. 이들은 그동안 약 27억 달러(약 3조5천700억원)를 투자했으며, 2만5천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 회사의 현지 총자산은 163억 달러(약 21조5천억원)에 이른다.

2010년 전후에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이어진다. 롯데마트가 2008년 10월에 인도네시아 마크로(Makro) 19개점을 인수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하며 우리나라 유통업체로서는 최초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2010년 8월 직접 투자 방식을 통해 수도 자카르타에 간다리아 시티점(Gandaria City)을 오픈했고, 2021년 기준 49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9월 한국타이어는 서부자바주 브카시 지역에 있는 공단에 총 3억 5300만달러(약 3800억원)를 투자해 1단계 완공한 인도네시아 공장은 승용차용 타이어, 초고성능 타이어, 경트럭용 타이어 등을 연간 60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최신 제조 설비를 갖췄다.

2013년 12월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업체 크라카타우스틸(PT Krakatau Steel)이 각각 70%, 30%씩 투자해 설립한 크라카타우포스코가 연간 생산능력 300만톤 규모의 동남아 최초 일관 제철소를 완공해 가동한지 4년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톤을 돌파했다. 2022년 7월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 크라카타우스틸과 철강 생산능력 확대 및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사업 참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다. 포스코와 크라카

타우스틸은 향후 5년간 공동으로 35억 달러를 투자해 크라카타우포스코(PT Krakatau-POSCO)의 제 2고로와 냉연공장 신설을 추진한다. 크라카타우포스코는 포스코와 크라카타우스틸이 합작한 일관제철소로 수도인 자카르타 북서쪽으로 약 100Km 거리의 쥘레곤(Cilegon)에 위치해 있다. 현재 연산 300만 톤 규모의 고로 1기와 후판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크라카타우스틸의 현물출자를 통해 열연공장도 갖출 예정이다. 포스코와 크라카타우스틸은 크라카타우포스코에 고로 1기를 추가로 건설해 연간 조강량을 6백만 톤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자동차강판 생산 설비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스코는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건설 사업에도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한국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평가받는 송도국제도시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포스코건설 등 그룹사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 반뜰주에 약 47만㎡ 면적의 부지에 납사분해설비(NCC) 등 대규모 석



PT Lotte Chemical Indonesia(LCI)는 Cilegon City

유화학단지 건설을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만 39억 달러(약 5조4300억원)로 롯데그룹이 진행하는 해외 투자 중 규모가 가장 크다. 2025년 완공 예정으로 연간 에틸렌 100만t, 프로필렌 52만t, 폴리프로필렌 25만t 등이 생산된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국산 훈련기 KT-1,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잠수함 사업을 통해 방산협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 무기개발사업’이라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하고 있다.

2) 기업금융에서 소매금융 이어 디지털금융으로

1960년대 후반에 코데코(KODECO, 당시 한국 남방개발)와 코린도(Korindo, 당시 인니동화) 등 한국 기업의 제1차 인도네시아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금융 지원과 시장 조사의 필요성이 커지자, 1968년 한국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 자카르타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1980년대 후반은 제2차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시기다. 1988년부터 한국 신발과 봉제 기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인도네시아에 쏟아져 들어오자,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금융지원이 절실하게 되었다. 1990년에 가장 먼저 현지법인을 설립한 은행은 한국외환은행이다. 이어 1992년 한일은행(현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이 현지법인을 설립한다.

1997년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인도네시아는 이듬해 5월 수하르트 정권이 붕괴된다. 이후 민주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개혁시대(Era Reformasi)를 맞는다. B.J 하비비,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압두라흐만 와히드 대통령 등 6년 동안 대통령이 3차례 교체되는 과도기적 혼란을 겪는다. 2004년 최초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정국과 치안이 안정되고 대(對) 중국 자원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연 평균 6%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도요노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투자도 크게 증가하면서 호황을 구가했다.

우호적인 정치, 경제와 사회 분위기에 따라, 2005년 이후 제3차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러시가 이어진다. 시의적절하게 KEB하나은행은 2007년 현지 은행을 인수해 현지법인을 설립한다. 신한은행은 2016년에 신한인도네시아은행, OK저축은행은 2019년에 OK뱅크인도네시아 그리고 IBK은행은 2019년에, IBK인도네시아은행 등은 각각 현지 은행 두 곳을 인수·합병(M&A)하면서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국민은행은 2018년 7월 부코핀은행의 지분 22%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됐고, 2020년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KB부코핀은행의 지분율을 67%까지 확대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최근 수년간 동안 한국계 은행이 앞다퉈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대출 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마진률이 한국보다 3배 정도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시중은행의 예대마진률은 약 1.17%p에 불과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약 5%p나 된다. 더욱이 2억 8천만명의 세계 4위 인구대국으로 성인 인구의 계좌보유율이 40% 정도에 불과해 성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려운 금융환경이 장애물이다. 인도네시아에는 시중은행 격인 상업은행이 120여 개에 달하고, 여기에 지방은행까지 포함하면 1,7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금융사들이 난립해 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들의 독점 체제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의 엄격한 감독은 외국계 은행에게는 어려운 여건이다.

한국계 은행들은 현지 진출 초기에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금융 영업에 초점을 맞췄다. 2007년 KEB하나은행이 현지 소매은행인 빈땅마농갈은행(PT Bank Bintang Manunggal)을 인수를 시작으로 이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들도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화 전략으로 리테일(소매) 영업을 확대하는 등 변신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에서 디지털 뱅킹을 확대되면서 한국계 은행들이 현지에서 비대면·디지털 기반의 금융서비스 등 첨단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기타 리스업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1992년 인도네시아에 종합금융(리스) 현지법인 인도네시아 한국수출입만다리은행(PT KOEXIM Mandiri Indonesia)을 설립했다. 1992년 이 은행 설립 당시 인도네시아 측 합작은행은 만다리은행의 전신인 방크다강느가라(Bank Dagang Negara)였다. KDB산업은행이 2019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사무소를 열었다. 앞서 코린도그룹의 클레몽종합금융(PT Clemont Finance)이 1989년 설립해 영업을 하고 있다.

3) 한류 열풍을 타고 비상하는 유통·식품 산업

인도네시아는 2020년 기준 2억8천만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68%, 평균 연령은 29세로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는 역동적인 소비시장이다. 아울러 소득 증가에 따른 중산층의 증가는 소비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소비가 55%가량 차지할 만큼 탄탄한 내수시장은 유통 서비스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하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전통시장보다는 쇼핑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현대적인 유통 채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9년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적인 유통 채널 가운데 하이퍼마켓과 미니마켓(편의점)은 확산 추세인 반면, 슈퍼마켓은 축소되고 있다. 2018년에만 헤로 슈퍼마켓이 26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미니마켓은 급증하는 추세다. 인도네시아 1위와 2위를 달리는 미니마켓인 인도마켓과 알파마트는 2011년에 매장수가 각각 5,755개와 5,200개였으나, 2017년에 각각 15,335개와 13,400개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대표적인 한국기업이 투자한 유통기업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8년 말 대형마트 ‘마크로’ 19개 점을 인수하며 국내 유통업계에서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2019년 12월 롯데마트는 중부자바주 뜨갈 지역에 인도네시아 50호점을 열었다.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 유통업계 역시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10대 도시 대형 점포와 중소 도시 거점 점포를 연결해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로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롯데그룹은 2013년 6월 자카르타 메가꾸닝안 지역의 복합단지인 ‘짜뿌트라 월드 자카르타’에 복합쇼핑몰인 ‘롯데쇼핑 예비점’을 오픈했다.

유통산업에서 현지 한인이 운영하는 유통기업과 슈퍼마켓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유통기업들은 먼 타국에서 한인들의 식생활을 책임져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한인 슈퍼마켓은 무궁화를 시작으로 도라지, 뉴서울, 한일마트, K-마트 등이 있으며, 이들 유통회사들은 인도네시아 대도시 식품 유통 점포에 납품하거나 한국인이 근무하는 지방에 있는 회사에 한국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2019년 8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푸드트럭과 홍보 버스를 몰고 ‘자바섬 횡단’이라는 색다른 공공외교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국 친구, 자바에 오다!’ 라는 뜻의 현지어 ‘뜨꼬 낭자와’ (Teman Korea(Teko) Nang Jawa!)라고 이름을 붙인 이벤트는 한국문화원과 관광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재인도네시아 외식업협회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푸드트럭이 함께 달려 머무르는 도시마다 현지인들에게 떡볶이와 닭강정, 군만두, 어묵 등을 선보였다. 이 행사를 주관한 김창범 대사는 “지방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한식을 비롯해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잘 없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이 지방까지 신경 써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음 호에 계속

두 개의 이름, 하나의 심장: <무지개 공부방> 김하나 씨 이야기

인터뷰: 이영미 편집위원

‘두 개의 이름, 하나의 심장’이란 제목으로 2023년 5월 재외동포청 스테디코리안 기사로 소개된 <무지개 공부방>은 뜻이 있는 한인 기업과 사업가들, 땅그랑반튼한인회가 힘을 모아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업을 주선할 목적으로 2010년 땅그랑 찌뜨라 라야에 개원했다. 교장 고재천 목사의 보살핌 아래 한글 교육과 태권도, 피아노, 인성 등의 교육을 받은 학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을 꼽으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은 ‘김하나’ 씨를 언급한다.

어린 시절 <무지개공부방>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며 자란 그녀는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갔고, 현재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해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김하나 씨의 여정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융합하며 자신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한, 인도네시아 다문화 가정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 김하나 씨와의 이번 인터뷰를 통해, 그녀의 성장 과정과 앞으로의 목표, 그리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를 잇는 여정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 <무지개공부방> 고재천 목사님, <땅그랑반튼한인회> 하연수 전 한인회장님과는 ‘오래된 인연’을 간직하고 계신데요. 두 분과의 인연에 대해서 모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2018년부터 하연수 선생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하 회장님께서 윤종찬 선생님께 제 연락처를 받아 가셨고, 마침 제가 한국에 와 있었던 터라 부산에서 저녁을 함께하면서 무지개 공부방 학생들과 제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 후에도 몇 번 더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하 회장님은 항상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저는 그 대화를 통해 많은 지지와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요.

2. <무지개공부방>에서 배운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도움이 되었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문화보다는 인도네시아 문화와 생활에 더 익숙했는데, 무지개 공부방 덕분에 한국어,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짧게 말하면 제가 살던 동네에 “작은 한국”이 있었던 셈이죠 (하하).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때 학교 끝나고 공부방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포도”와 “비누”라는 단어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가나다라와 숫자 1, 2, 3, 4 외에 제일 빨리 배운 단어들이었거든요.

3. <무지개공부방>에서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10월인데, 그때 이맘때쯤 공부방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파티 무대 준비를 시작하곤 했어요. 매년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가 정말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다양한 무대를 준비했어요. 어떤 친구는 노래를 부르고, 또 다른 친구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특별한 공연을 하기도 했죠. 크리스마스 파티에는 많은 한국 분들도 오셔서 함께 즐겼던 기억이 나요. 매년 이 행사를 준비해주신 고 목사님과 사모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경험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렇게 무지개공부방에서의 크리스마스 파티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연간 행사였어요. 그때의 즐거운 기억이 지금도 떠오르니, 기분이 좋네요 😊

4. 한국의 대학교에서 학업을 하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한국인 기업의 후원으로 부산 경성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과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국의 경성대학교에서 학업을 하게 된 과정은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대학 진학을 고민하던 시기에, 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특히, 당시 경성어학원을 운영하시던 이동률 선생님과 연결해 주셔서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저는 6개월 동안 자카르타에 있는 경성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했고, 목사님 부부를 통해 기업 관계자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분들의 후원 덕분에 부산에 있는 경성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뒤에서 저를 지원해 주시고,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좋은 기



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덕분에 대학 생활을 무사히 시작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도움과 응원 덕분에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를 얻었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5.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은 어땠나요? 적응하는데 힘든 점은 없었나요?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죠.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외모는 다들 저랑 비슷해 보이는데, 언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특히 장학금을 유지하려면 시험 성적이 중요했는데, 교과서로만 배운 한국어로는 실제 대화가 힘들었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한국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 길은 내가 개척하자!” 라는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적응하려고 했어요. 대외활동,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고, 그 덕분에 점점 귀도 트이고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어요. “역시, 하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어려웠던 한국 생활을 이겨냈고, 그 경험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아가는 큰 힘이 되고 있어요.

6. 졸업 후 바로 현재의 직장에 취직 하셨나요? 성형외과와 뷰티 산업에서 커리어를 쌓으시는데 전공이 이 쪽 인가요?

저는 무역학과를 전공했지만,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웃음) 대학 졸업 후에 잠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산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당시 외국인으로서 취업비자(E-7)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회사에서 비자 지원이 힘들어서 수습 기간만 마치고 퇴사하게 됐어요.

퇴사 후 구직활동을 하던 중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했는데, 그 회사가 뷰티 사업을 하는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분야에 대해 잘 몰라서 걱정했지만, 통역 업무도 있고 사람들이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면서 점점 흥미를 가지게 됐어요.

그 후에는 2차 전지, 게임 등 뷰티와 상관없는 여러 분야에서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하며 경력을 쌓았고, 지금은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7. 우리가 알다시피, 성형수술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모두 존재합니다. 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미(美)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름다움이 외적인 미와 내적인 미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SNS가 활발히 사용되면서, 미의 기준이 ‘하얀 피부, 큰 눈, 마른 몸매’ 처럼 대중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런 “모두의 미 기준”이 꼭



진정한 아름다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다고 믿어요. 자기애와 자신감이 넘치면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그 밝은 에너지에서 힘을 얻을 수 있죠. 때로는 그 자신감을 얻기 위해 성형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는 성형수술을 그 자체로만 보지 않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해요. 성형수술은 진정한 미를 찾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에요.

8. 김하나 선생님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가족의 역할이나 소중함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가족은 삶의 기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나가기 전, 가족은 우리가 자신을 알아가는 첫 번째 공동체로서, 외부 세계와 다른 공동체와 연결되기 전에 필요한 준비를 해주는 곳이에요. 저는 특히 어머니에게서 세상을 굳건하게 대처하는 법을 많이 배웠고, 그런 가르침이 큰 힘이 되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많은 기쁨과 슬픔이 있었고, 때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관계가 더욱 깊어졌죠. 가족의 지지와 믿음 덕분에 지금의 제

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 함께하지 않지만,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족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은 언제나 제 곁에 있지 않더라도, 제 마음속에서 큰 힘이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9.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의 융합이 당신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나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의 융합은 제 삶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거주지와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 더 느긋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지만, 한국에 오니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해야 했죠. 그래서 두 문화의 융합이 저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진정함’과 ‘성급함’이라는 두 단어는 각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너무 느긋해져서 소홀해질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성급해져서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합쳐질 때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정하면서도 끊기 있게” 두 문화를 경험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다문화인으로서, 저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항상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화의 조화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10.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 잠시 살다가 한국으로 이주한 다문화 아이로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발견한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 대학 입학 전까지 살다가 한국으로 이주한 다문화 아이로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점은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문화 콘텐츠에 잘 드러나 있죠.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도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여 주었

어요. 그리고 BTS와 같은 보이 그룹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죠.

한국은 면적과 인구 수로 보면 ‘작은’ 나라일 수 있지만, 질적으로는 선두에 서 있으며 최고의 것을 추구하는 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저에게 항상 놀라움으로 다가오고, 그 열정과 끈기는 많은 것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취 뒤에는 운이 따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은 한국에서의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11. 다른 다문화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문화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아마 다문화인으로서 한 번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혼란을 느껴봤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차이(difference)’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어요. 두 문화의 뿌리를 결합함으로써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각자의 배경과 경험을 통해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걸 자신 있게 표현하고 소중히 여기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다양성이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찌까랑 한인회, 코리아 문화센터 개설

2024년 11월 6일 찌까랑 한인회 코리아 문화센터를 개설하였다.

찌까랑 안윤근 한인회장님을 비롯 양영연 명예회장과 박재한 한인회장, Indra Iman (Presdir Meikarta), Henry Tan (Mall Director LMI) 그리고 Bapak Iyan Priyatna (Kepala Dinas Pariwisata) 가 참석하여 문화센터 개설을 축하했다.

찌까랑 한인회 안윤근 회장은 “우리 찌까랑 한인회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역 특성상 부족했던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강좌를 하고 있다” 고 말하고 찌까랑 한인회 사무실에서 진행하던 문화 활동을 위하여 전용공간을 제공한 메이까르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새로 개설된 찌까랑 <한국문화 센터>는 강변찬 센터장과 정필순 부센터장을 임명하여 보다 더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메이까르따와 협업하여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 많은 활동을 폭넓게 이끌어 갈 예정이다.



[8개 반 문화센터 담당 선생님]

1. 한글반 - 배경순선생님
2. 인니어반 - 최지영선생님
3. 장구반 - 김일순선생님
4. 스트레칭반- 정미경선생님
5. 미술반 - 래아김 선생님
6. 라인댄스반 - 고사순선생님
7. 뜨개질반 - 장정하 선생님
8. 클라리넷반 - 이일하 선생님

(제공: 찌까랑 한인회 사무국)

한국 제약회사 종근당, 고촌재단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 인도네시아 현지 장학생 선발... 2024 장학증서수여식 개최
- ▶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표로 2013년부터 저개발국가 현지 대학생 461명 지원

종근당고촌재단(이사장 정재정)은 14일과 15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장학생 2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종근당고촌재단은 1973년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목표로 종근당 창업주 故 고촌 이종근 회장의 사재로 설립된 장학재단이다.

이번 수여식은 반둥공과대학교와 인도네시아국립대학에서 각 대학 학장 등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종근당고촌재단은 2개 대학의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2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국내 대학원으로 입학한 유학생에게는 등록금과 체재비를 지원한다. 오는 21일에는 우수 장학생을 한국으로 초청해 일주일간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국내 장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켈빈 리카르도(Kelvin Ricardo, 인도네시아 국립대 2학년)씨는 “종근당고촌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더욱 집중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은 “종근당고촌재단의 장학사업은 국경을 뛰어넘어 전세계의 모든 인재들을 향해 있다”며 “올해 선발된 고촌 장학생들이 국가적인 리더가 되어 한국과의 협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근당고촌재단은 2013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저개발국가의 인재를 지원하자는 이장한 회장의 제안에 따라 해외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외 장학생 461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향후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지난 8월 정재정 이사를 제3대 이사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2020년부터 종근당고촌재단의 이사를 맡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역할을 담당하며 설립자 고(故) 고촌(高村) 이종근 회장의 나눔의 정신을 계승해 왔다.

국내 제약회사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2015년 9월 인도네시아 OTTO社와 함께 합작회사 PT CKD OTTO Pharmaceuticals(이하 CKD OTTO)를 설립했다.

2018년 현지에 12,588㎡ 규모의 항암제 공장을 준공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GMP 승인을 획득했으며, 그 이듬해인 2019년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구인 울레마협의회(MUI, Majelis Ulama Indonesia)로부터 항암 주사제 최초로 할랄(HALAL) 인증을 받은 바 있다.

CKD OTTO(대표 백상현)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 제약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2조원이고 향후 연평균 성장률(CAGR) 10%대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CKD OTTO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와 MENA 지역 수출 사업 외에 아세안 시장 공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법치국가(Negara Hukum)(2)

(전호에서 계속)

*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 즉, 사건에 대하여 각 판사가 재판부 협의회에서 제기한 의견을 공개하면, 각 판사의 재판 근거가 명확하게 공개되어, 사법부의 부조리, 특히,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일이 줄어들고, 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 는 의견들이 있다.

하. 모든 선고는 반드시 공개 선고하여야 한다. 비공개 선고는 무효이다.

거. 일반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 민간인과 군사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 군인이 관련된 형사 사건은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정한 사건은 대법원장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명할 수 있다.

너. 모든 판결문은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 명확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기하며, 판결문에 재판장, 배석판사 및 법원서기가 서명한다.

더. 법원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협의회 협의 내용 요약서 혹은 심리회의록에는 재판장과 입회서기가 서명한다.

러. 판사는 실정법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정기준도 참작하여 재판한다.

머. 형사피고인의 형량은 피고의 죄질도 감안하여 결정한다.

버. 피고에게 재판부 기피권이 주어져 있다.

서. 배석 판사가 재판장, 다른 배석 판사, 검사, 변호사 혹은 법원 입회서기와 가족관계 혹은 배우자 관계(이미 이혼 했을지라도)가 있으면 배석 판사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어. 재판장, 배석판사, 검사 혹은 법원 입회서기가 소송의 당사자 혹은 변호사와 가족 관계 혹은 배우자 관계(이미 이혼 했을지라도)에 있으면 해당 소송 처리 업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판사 혹은 법원 입회서기가 소송중인 사건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송 처리 업무

에서 물러나야 한다.

저. 상기 “어” 항을 어기고 선고된 판결문은 무효이며 관련 판사 혹은 법원 입회 서기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혹은 형사처벌에 처한다.

6. 법원 판결문의 집행

가. 형사사건 판결문은 검사가 집행한다.

나. 형사사건 판결문의 집행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다. 민사사건 판결문은 관할 지방법원장의 지휘하에 법원 서기와 집달리가 집행한다.

라. 판결문은 인간애와 공정에 기준하며 집행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맞게 입법이 되었는지 여부, 즉, 법률의 위헌 여부를 재판하며,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에 관할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권 재판, 정당해산여부 재판,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대통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에 판결을 하며,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징계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8. 대법원(Mahkamah Agung/MA)

상술한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 직무 이외의 사법부의 모든 직무는 대법원과 산하법원이 수행한다. 따라서 우리 교민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와는 실질상으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으나, 대법원 및 산하 법원과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놓여 있다. 대법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대법원에 관해 살펴본다.



가. 대법원의 직무

(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지방법원, 상업법원, 노동법원, 미성년자법원, 종교법원, 행정법원, 세무법원, 군사법원 및 종교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고(Kasasi)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하는 일이다. 일반 사건은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재심청구에 대한 판결을 한다. 일반 사건인 경우에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

결문은 실효하며,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는 뜻이다),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된다. 소송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결문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3). 대법원은 재판 관할권에 대하여 판결을 한다. 하급 법원 간에 재판 관할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원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할 하에 있을 때에, 세무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무법원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정 신고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할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인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도네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1945년 헌법, 국민협회의 결의사항,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행정부의 긴급 조치령, 정부령, 대통령령, 장관령, 청장령, 주 조 례, 주지사령, 시/군 조례, 시장/군수령, 구청장령, 동장령/면장령, 통장령, 반장령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행정부의 긴급조치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령부터 반장령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지 여부를 대법원에서 판결한다.

(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심판인 재판을 한다.

(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8). 대법원은 변호사와 공증인에 대한 감독을 한다. 변호사 혹은 공증인이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사 혹은 공증인을 파면 혹은 정직시킬 수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공증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증인만을 뜻한다. 인도네시아에 공증인 자격증이 없는 가짜 공증인은 없으나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 행세를 하는 경우는 더러 있는 현지 실정이다.

(다음 호에 계속)

경남도 자카르타사무소, '제2회 한국어 디카시 경연대회' 개최

- ▶ 경남의 4계절을 주제로 사진과 시로 표현된 94개 작품 접수
- ▶ 지리산의 아름다운 사계절 풍경 묘사 '지리산의 사계' 최우수 선정

경상남도 자카르타사무소는 인도네시아에서 경남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27일까지 '제2회 한국어 디카시 경연대회'를 자카르타사무소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최하고,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경남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제로, 94개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최우수는 Ajeng Adinda Putri 씨의 '지리산의 사계'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지리산 계곡의 맑은 물과 바위가 잘 어우러진 사진과 함께 계절별 지리산 풍경을 시적인 감수성으로 아름답고 섬세하게 묘사했다.

우수작은 '아가씨의 시선'과 '경화역의 봄사랑' 2점으로, 사천시 노산공원에 있는 삼천포 아가씨 동상과 진해벚꽃을 보고 느낀 감상을 잘 표현하여 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평가를 담당한 채인숙 시인은 "디카시는 사진과 시가 하나로 어우러져 시를 구성하는 장르로, 시적 완성도와 사진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사진과 함께 신선하고 독창적인 소재와 표현력으로 시를 읽는 즐거움을 주었으며, 내년에도 독특한 나만의 경남이야기를 찍고 쓴 좋은 작품들을 기대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지리산의 사계



지리산의 맑은 물줄기, 사계절 품어 안고 흐르네
꽃잎은 물살에 실려 미소를 머금고
햇살은 푸른 산자락 위에 춤추며 노래하네
붉게 물든 단풍이 물길을 따라 속삭이고
고요한 눈송이가 강물 위에 사뿐히 내려앉네
천 년을 넘어서도 끝없이 피어나는 생명의 찬가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은 한국어 디카시 경연대회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많은 작품이 응모되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경남의 자연과 관광지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경상남도 자카르타사무소장은 "내년 초 자카르타와 김해의 직항 취항을 앞두고 있어 관광객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에 힘입어 앞으로도 경남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K드라마 등 한류를 좋아하는 많은 인도네시아인을 경남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 임원외비 납부명단

기준 : 2024.1.1 ~ 2024.11.28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1	회장	박재한	JAVA PALACE HOTEL	20,000	
2	명예회장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10,000	
3	명예회장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10,000	
4	명예고문	김우재	PT. KOIN BUMI	5,000	
5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5,000	
6	고문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5,000	
7	고문	송창근	KMK GROUP	5,000	
8	고문	신규태	PT. INDO SUNG IL JAYA	5,000	
9	고문	이호덕	ROYAL SUMATRA GROUP	5,000	
10	수석부회장	김종현	PT. KOIN BUMI	10,000	
11	수석부회장	손한평	PT. DONGSAN HOLDINGS	10,000	
12	수석부회장	채영애	한인회 여성분과	10,000	
13	부회장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5,000	
14	부회장	강호성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5,000	
15	부회장	김문수	PT. QUTY KURNIA	5,000	
16	부회장	김육찬	PT. GARUDA TWIN JAYA	10,000	2023-2024
17	부회장	김응철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5,000	
18	부회장	김종희	PT. YOUNG JIN INDONESIA	5,000	
19	부회장	김창근	KODECO ENERGY CO LTD	5,000	
20	부회장	박상갑	PT. VIDEX INDONESIA	5,000	
21	부회장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5,000	
22	부회장	승범수	TSE GROUP	5,000	
23	부회장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5,000	
24	부회장	오인택	PT. BANK IBK INDONESIA TBK	5,000	
25	부회장	이광옥	PT. YUNI INTERNATIONAL	5,000	
26	부회장	이우열	PT. BANK BUKOPIN TBK	5,000	
27	부회장	이정호	PT. HEONZ ROYAL JAYA	5,000	
28	부회장	이정휴	PT. GEE SAN INDONESIA	5,000	
29	부회장	이종남	PT. SINYOUNG ABADI	5,000	
30	부회장	이주한	PT. MEDISON JAYA RAYA	5,000	
31	부회장	장윤하	PT. HARINDO	5,000	
32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5,000	
33	부회장	최재혁	PT. HILON INDONESIA	5,000	
34	부회장	하재수	PT. ROYAL PUSPITA	5,000	
35	자문위원장	구종을	PT. JASINDO DUTA SEGARA	2,000	
36	자문위원	강희중	PT. SUNG TECHNOLOGY	1,000	
37	자문위원	길병완	PT. DAEYOUNG DUNIA SUBUR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38	자문위원	김소웅	PT. SCI	1,000	
39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1,000	
40	자문위원	김영욱	PT. GAYA INDAH KHARISMA	1,000	
41	자문위원	김영주	PT. DEWA CITRA SEJATI	1,000	
42	자문위원	김주철	PT. STAR CAMTEX	1,000	
43	자문위원	김태화	PT. EEN STEEL INDONESIA	1,000	
44	자문위원	김희익	PT. EPS INDONESIA	1,000	
45	자문위원	박의태	PT. SKYTAPE INDONESIA	1,000	
46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1,000	
47	자문위원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1,000	
48	자문위원	오세명	PT. SUNGLIM CHEMICAL	1,000	
49	자문위원	이승민	PT. YSM & PARTNERS	1,000	
50	자문위원	이종현	PT. LEO KORINSIA	1,000	
51	자문위원	이진호	PT. JIN YOUNG	1,000	
52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1,000	
53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54	자문위원	하연수	PT. SEOLIN NIAGATAMA	1,000	
55	이사	강기석	PT. GREEN MEDICA	1,000	
56	이사	강기훈	PT. PLATECH JAYA INDONESIA	1,000	
57	이사	강병찬	PT. GLOBAL INDOREKSA ASIA	1,000	
58	이사	강수환	PT. CHAEUM DESIGN	1,000	
59	이사	강윤석	PT. PLATECH MOLD INDONESIA	1,000	
60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1,000	
61	이사	김경국	PT. CYBER WORLD INDONESIA	3,000	2022-2024
62	이사	김동석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1,000	
63	이사	김민규	PT. WOORI CONSULTING	1,000	
64	이사	김서경	PT. ACCENTUATES	1,000	
65	이사	김신	PT. YUBI TECHNOLOGY	1,000	
66	이사	김영섭	PT. INDIGO MEDICAL INDONESIA	1,000	
67	이사	김영을	PT. SUNG CHANG INDONESIA	1,000	
68	이사	김영주	PT. SAINT JAMES	1,000	
69	이사	김옥준	BSI GROUP	1,000	
70	이사	김일태	PT. OROM	1,000	
71	이사	김형근	PT. GAYA INDAH KHARISMA	1,000	
72	이사	김호권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1,000	
73	이사	김화룡	PT. BANGUN MAJU LESTARI	1,000	
74	이사	남궁훈	PT. HANWA LIFE INSURANCE INDONESIA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75	이사	노예범	PT. SAM PUTRA INTI	1,000	
76	이사	박광률	PT. SHINWOO GLOBAL INDONESIA	1,000	
77	이사	박영진	PT. JUBIT CONSULTING INDONESIA	1,000	
78	이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000	
79	이사	백상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000	
80	이사	서영률	PT. PRATAMA ABADI INDUSTRI	1,000	
81	이사	성예식	PT. F1-LOGIX	1,000	
82	이사	손석기	PT. PERKASA INDAH MAKMUR	1,000	
83	이사	송영한	PT. KOFORM INDONESIA	1,000	
84	이사	송판원	PT. KORYE POLIMER	1,000	
85	이사	신호진	PT. HANINDO EXPRESS UTAMA	1,000	
86	이사	안선근	U.I.N UNIVERSITY	1,000	
87	이사	안창섭	PT. PETRASAKTI MADYATAMA	1,000	
88	이사	양시완	PT. KISWIRE INDONESIA	1,000	
89	이사	오동훈	PT. FNS TRANSBUANA	1,000	
90	이사	유용선	PT. DAEHWA INDONESIA	1,000	
91	이사	윤수학	PT. DAE YOUNG APEX	1,000	
92	이사	이근대	PT. DONGBANG	1,000	
93	이사	이상일	PT. UNGARAN INDAH BUSANA	1,000	
94	이사	이성삼	PT. LSS (LIGA SEJATI SEJATRA)	1,000	
95	이사	이세호	PT. GORI GLOBAL INDONESIA	2,000	2023-2024
96	이사	이승수	PT. SINYOUNG ABADI	1,000	
97	이사	이옥찬	PT. KORINA SEMARANG	1,000	
98	이사	이지완	PT. JIN YOUNG	1,000	
99	이사	이철훈	PT. INDO BOX UTAMA JAYA	1,000	
100	이사	이한주	PT. SAJI SEGAR LESTARI	1,000	
101	이사	임일택	PT. ACE MOLD TECH	1,000	
102	이사	장영관	PT. LAYCO	1,000	
103	이사	정상봉	PT. DAESANG INGREDIENTS INDONESIA	1,000	
104	이사	정창섭	PT. DAEWOO LOGISTICS ASIA	1,000	
105	이사	조용재	PT. SUNG CHANG INDONESIA	1,000	
106	이사	최재혁	PT. INDO BUMI LESTARI	1,000	
107	이사	최재희	PT. STONE CANYON INDONESIA	1,000	
108	이사	최제동	PT. CMS CHEMICAL INDONESIA	1,000	
109	이사	최태립	PT. INTERNAT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ITL)	1,000	
110	이사	홍기호	PT. AURORA WORLD CIANJUR	1,000	
111	이사	홍종서	PT. ARION TECH INDONESIA	1,000	
112	이사	황의상	PT. SEPULUH SUMBER ANUGERAH	1,000	

2024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 납부순

번호	성명	금액(IDR)
1	최석일	300,000
2	NO NAME	300,000
3	채만용	300,000
4	김영경	1,000,000
5	NO NAME	500,000
6	정순	300,000
7	김규리	300,000
8	김경희	300,000
9	사공경	300,000
10	엄강심	300,000
11	김희순	300,000
12	석웅치	300,000
13	안진호	300,000
14	정사무엘	300,000
15	최혜진	300,000
16	김대근	300,000
17	김창근	300,000
18	김성구	300,000
19	김태원	300,000
20	이상일	300,000
21	최인실	300,000
22	홍석영	300,000
23	이은진	300,000
24	NO NAME	500,000
25	이순형	600,000

번호	성명	금액(IDR)
26	NO NAME	500,000
27	NO NAME	500,000
28	오세명	300,000
29	이송용	300,000
30	이현용	300,000
31	김혜아	300,000
32	차신우	300,000
33	NO NAME	500,000
34	NO NAME	500,000
35	김윤진	300,000
36	차윤재	300,000
37	이지선	500,000
38	사공경	300,000
39	한규승	300,000
40	김성진	300,000
41	NO NAME	500,000
42	이지선	500,000
43	박수덕	300,000
44	이지선	500,000
45	강희중	300,000
46	최임선	300,000
47	장윤하	300,000
48	이지선	500,000
49	이지선	500,000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당직폰)	0811 3831 3659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I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짜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SWA BSD	0812 8689 2897
SWA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DAMAI INDAH [BSD]	537 0290
DAMAI INDAH [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85 319
MODERN	552 9228
PADANG GOLF HALIM	800 5762
PALM HILL	8795 4888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2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1212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IVER SIDE	867 1528
ROYAL JAKARTA	8088 8999
SEDANA	0267)644 730

SEDAYU	5020 8088
SENTUL HIGHLAND	8796 0266
SUVARNA	0811 1586 873
TAKARA	549 637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운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라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Jasmin Hair Salon 1	7280 0019
	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7278 0255
Jasmin Hair Studio 3	7278 6530
레르아뷰티샵	0858 5111 1222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차르헤어	7279 6998
선스파	021-2793-3625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병원**

관중한의원	739 7854
뉴웰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Central Clinic	2709 9272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외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라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뽀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골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뽀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딤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딤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빨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뽀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꼬본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부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찌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뽀독뽀낭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무궁화 꼬망점	021 722 7214
무궁화 찌뿌뜨라점	0821 1448 0988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뵈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무궁화 라베뉴점	0852 8279 9647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 식당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마골	021 7278 7789
가야성	725 7373
가호(MOI)	0811 9966 677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경복궁(찌부부르)	021 3885 304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마포	7279 2479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카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2937 5435
소래포구	8990 505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한옥	0254-385 588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감미옥	5579 461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다움	021 5081 3656
웅대리 (SCBD)	021-5150 7734
	0812 5723 7627 (WA)
(Kelapa Gading MOI)	021-2245 0964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수하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예원	021-7212-0533
찬찬	0812-1060-4848
숙달	0821-4007-7256
지원갈비	021-7212-0436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하나	0254-393 2146
하누	021 722 2365
한상 (PIK)	0812 8881 1532
홍대포차	726 4999
홍콩반점	0812-2442-6092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JASMIN HAIR SALON

Jasmin Hair Salon 1 (한국 미용실)
Darmawangsa Square 1F G46 Jakarta Selatan
영업시간 09:00~19:00 Tlp. 021 7280 0019/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현지 샬롱)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0225

Jasmin Hair Studio 3 (맛사지, 네일 전문점)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6530
Darmawangsa Square GF (Studio 2 G40, Studio 3 G54)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OK컨설팅	0852	8185 5551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블루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2	8051 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동지 하숙	3608	9316
리쁘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썬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오롬 컨설팅
OROM CONSULTING
SINCE 1996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APOSTILLE - NATURALISASI
법인설립 (PMA & PMDN)

VISA INTERNATIONAL (Korea, China, Jepang, Singapore, Schengen, etc.)

Ruko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 Jakarta Utara 14240

Winda (Team 1)
(021) - 4585 6898
(0811) -882 1462

(한국인) Kakao ID : indocity1991
visa.orom@gmail.com
www.orom.co.id

Suhada (Team 2)
(021) - 2245 5879
(0812) - 9759 8638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김군

고기고기
밴드(김군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종교 단체

<기독교>

-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용) 0811-194-8291
-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 자카르타 중앙 교회
(여성호) 0813-8103-9768
-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 찌프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 짚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 한인열방교회(송광욱) 0811-951-762

반 등

- 반등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 반등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 반등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 반등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 스마랑/족자**
-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단&발리

- 메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갈리만탄

-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현) 62-8115400-863

● 항공

-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 그랜드멜리아 526 8080
- 만다린 314 1407
- 몰리아 574 7777
- 샹그릴라 570 7440

- 싸이드자야 570 4444
- 하야트 390 1234
- 크라온플라자 526 8833
- 술탄 573 8011
-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 굿-머니 5793 9990
-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 갈라빠가징 453 1166
-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 위너머니체인저 7278 0929
- 뚜나스신암 797 6105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짜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등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등렌트카	0858-1111-4000
반등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등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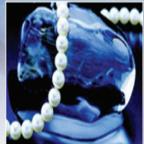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1 176 184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HP. +62-816-873-176, +62-816-1390-333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E-mail. 3spearl@hanmail.net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82-10-5509-7751, +82-10-9824-8857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건우) 0815 1902 4123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서울 영동고(최성욱) 0811 1920 121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재)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윤)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이종현) 0811 151 7181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류재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승)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1960-308]	회장	박 재 한	0816-825-931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김 예 형	0821-8166-6137
3	찌까랑 한인회	회장	안 윤 근	0812-8164-8333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4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 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6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김 은 수	0812-8811-1733
		사무차장	정 상	0815-4650-3667
7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국장	유 성	0811-2777-490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9	족자카르타한인회 [0274) 497-761]	회장	박 현 두	0821-3595-5522
		총무	조 경 민	0821-3342-8818
10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호 섭	0812-6666-333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11	발리한인회 [0822 1996 3355]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12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서 명 택	0821-7300-012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14	메단한인회	회장	안 의 현	0811-6103-332
		총무	박 성 준	0813-7512-6888
15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6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국장	권 태 윤	0812-9881-6841

www.sticorp.co.kr

THEP

TRASINDO

SAMINDO

STI Indonesia

CEP

PSG



International

Synergy for Tomorrow

삼탄이 **ST** International 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SBS

DONGHAE

SIMS

MINTEC

Yeong Yang Wind Power

SRT

SRT

ABM

KIDECO